



주간 중국 창업

제 160 호 (2019. 12. 25)

발행처 : 한국혁신센터(KIC)중국
센터장 : 이상운

전화 : +86-10-6437-7896
메일 : info@kicchina.org

'주간 중국 창업'의 저작권은 'KIC중국'에 있습니다. 출처 밝혀주시고 무한 활용하십시오.

주간 NEWS

- ▶ 첫 회 AI 전공학생들이 이미 입학했지만 AI 는 여전히 인력 부족 (봉황과기, 2019.12.18)
- ▶ 한국 자율주행 알고리즘 회사 '스트라드비전', B 라운드 파이낸싱에서 2,700 만 달러 유치 (투자계, 2019.12.20)
- ▶ Didi Chuxing 일본 음식배달 시장에 진출 (텐센트과기, 2019.12.20)
- ▶ BBC 다큐멘터리도 이만 못하다: 중국 농촌의 큰 가능성을 연 생생한 영상 (티타늄미디어, 2019.11.29)

ISSUE 및 시장동향

- ▶ 리즈치 배후의 왕흥 해외진출 열풍 - 봉황과기 제공
- ▶ 인도투자를 둔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전쟁 -신량창세기(新良创事记) 제공
- ▶ 썬한캐피탈의 투자 이념: 프로젝트의 가치를 중시하고 강한 세계관을 가진 창업가 - IT 오렌지 제공
- ▶ 양자컴퓨터 시리즈 27) 양자컴퓨팅 위협을 두려워하지않는 암호알고리즘 개발 - 신량과기 제공
- ▶ ICO News Letter by PLAYCOIN 특집 - PLAYCOIN 제공
- ▶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디자인(107) - 윤형건 교수 제공

일본 전문가 시각으로 본 중국

- ▶ 2020년 투자대상으로서의 일본 (IT media, 2019.12.20)
- ▶ 미중무역협약, 영국총선거, FOMC... 이어지는 이벤트는 외환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머니포스트 WEB, 2019.12.20)
- ▶ 2020년, 드디어 아베노믹스의 '최종결론'이 밝혀진다 (겐다이비즈니스, 2019.12.19)
- ▶ 토요타, 키린이 '중도채용자'를 소중히 하는 이유 (겐다이비즈니스, 2019.12.19)

KIC 중국 NEWS

- ▶ KIC 중국 이상운 센터장, '황예방 100 미래산업 정상회의' 참석 (2019.12.18)
- ▶ KIC중국 이상운 센터장 <한 · 중 · 일 벤처투자 및 과학 기술 성과 혁신 포럼회> 참석 (2019.12.19)

- ▶ KIC중국 이상운 센터장 <2019 중국 광곡 3551 국제 창업대회 결승전> 심사위원으로 참석
(2019.12.19)

주간 NEWS

1. 첫 회 AI 전공학생들이 이미 입학했지만 AI는 여전히 인력 부족 (봉황과기, 2019.12.18)

AI 붐이 만연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인재 부족 문제가 업계에 크게 대두되기 시작했다. 데이터는 중국의 인공 지능 인재 부족 수가 5 백만을 초과하고, 빅 데이터 인재는 150 만 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인프라가 풍부하고 데이터가 풍부한 이 나라에서, 인재 부족이 중국의 AI 발전의 유일한 장애물이 된 것 같다.

수요 격차가 생기면 공급이 자연스럽게 보충된다. 인공 지능 인재 양성은 국가 전략으로 발전했을뿐만 아니라 주요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관련 전공을 설립해 왔으며, 기업들은 연이어 인재의 생태적 발전을 지원한다고 표시해왔으며, 각종 '3 개월간 AI 를 배우고 연소득 80 만위안을 번다'고 내세우는 훈련 기관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특히 올해 첫번째로 인공 지능 전공을 개설한 중국의 35 개 기관이 공식적으로 학생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으며, 4 년 후 중국 최초의 인공 지능 전공 졸업생이 '생산에 투입'될 것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우리는 AI 인재라는 이 화제에 대해, 그에 따른 교육 기관 산업사슬까지 재검증할 수 있다.

AI 갈등 해소? 알고리즘 직군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이유

매년 학교가 학생을 모집할 때가 되면, 언론에서는 일제히 '올해 총 XXX 백만 명의 졸업생'이라며 마치 졸업 후 바로 실업의 위기에 처한 것처럼 과장된 기사를 쏟아낸다. 반면, 기업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인재 가뭄이다. head count 에 늘 부족하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간의 불일치는 AI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사회의 모든 부문이 'AI 인재 육성 강화'를 요구했을 때 또 다른 목소리도 조용히 나타났다. 2008 년부터 'CV(컴퓨터 시각 Computer Vision)방향의 인재 수요에 대한 대량 공급'이 시작됐고, 2019 년/2020 년 학교내 알고리즘 직군 경쟁은 비정상적으로 치열해졌다. 일부 기업 홍보매체 또는 직원도 '이력서 수가 많고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뉴스를 공고한 적이 있다. 동시에 BOSS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직접 발행한 <2019 년 전 3 분기의 새로운 1 선 도시 기술인력에 대한 통찰>에서 올해 '알고리즘 엔지니어'직책의 평균 급여가 9 %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위의 데이터로 AI 인재 포화를 입증할 수 없지만 2016 ~ 2018 년 과열된 인재 기근은 어느 정도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우선 자본 시장의 전반적인 추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고용 수요의 전반적인 감소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분야의 수요도 여러 다양한 정도로 감소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외에 지난 몇 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AI 분야의 인재 구인난을 완화했을까?

첫째, AI 회사는 서비스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AI 회사들이, 대량의 이전 과학기술 인터넷에서 언급한 것은 '능력 제공' '산업 인터넷'과 같은 키워드였다. 서비스 산업과 서비스 전통 산업이 메인 업종이 되었다. 특히 이 러한 회사들은 다양한 AI 기능을 '소프트프로그램, 하드웨어, 클라우드'일체형 솔루션으로 통합했으며, AI 기능을 얻는 것이 더 이상 어렵지 않다. 소규모 기업조차 AutoML 식 도구로 필요한 자체 모델을 쉽게 만들 수 있다.

성숙한 기업의 서비스 의식은 증가했고, 자연히 다른 산업의 'AI 자체 강화'식 인재 수요를 자연스럽게 차단했다.



그림 1) 출처: 봉황과기

둘째, AI 영역의 인기 하강.

다른 '사업기회'와 마찬가지로, AI 분야의 인기 특히 자본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하강 추세를 보여준다. 투자 중국 연구원(据投中研究院)과 총치 캐피탈(崇期资本)이 공동 발표한 <2019 중국 인공 지능 산업 투자 및 금융 백서>에 따르면 2019 년 3/4 분기 중국 인공 지능 산업의 총자금 조달 규모는 557 억 위안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이 수치가 1189 억 위안에 도달했다. 2017 년 텐센트연구원(腾讯研究院)과 IT Orange(IT 桔子)가 공동으로 발표한 <2017 년 중미 인공지능 창업투자현황과 추세 연구보고>에서도 2017 년까지 중미 양국에서 도산한 AI 기업은 50 개에 달하며 이러한 추세는 자율주행과 같은 고투입 영역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산업 규모의 축소는 자연스럽게 인재의 긴축을 가져온다.

셋째, 많은 다른 영역의 인재가 직무를 옮겨왔다.

앞서 언급했듯이 AI 산업의 매력적인 급여는 대량의 'offer 사냥꾼'을 끌어 들였으며, 이전에 JAVA 및 C++ 개발에 종사하던 일부 프로그래머도 전향하게 하였다. 이전에 핫했지만 후에 위축된 iOS, Android 개발도 AI 업계에 진입하였다. 뿐만아니라 인공 지능 전공이 이제 막 학생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지만 통계, 컴퓨터 과학, 사물 인터넷, 지능 과학 등 기타 전공도 AI 대응 전공자다.

이러한 관점에서 AI 분야는 자연적으로 신선한 피가 부족하지 않다.

교육 기관의 폭격: 모바일 인터넷 시대의 비노동 집중 기술과 다르다

이러한 현상이 이제 막 진입한 AI 전공의 FreshMeat 에 영향을 미치기 전, 먼저 시장의 대규모 AI 교육 기관에 큰 타격을 입혔다.

인공 지능 교육 기관의 출구와 관련하여 업계에는 이미 많은 소개가 있었다. 그 화제거리는 대동소이하다. 예를 들어 광고에서는 알고리즘 개발 학습이라고 하고 실제로는 단지 기초 Python 과정뿐인 것이다. 다소 양심적인 교육 기관은 다른 방향으로 후속 알고리즘 과정을 제공하지만 학생들이 계속 돈을 지불해야 한다.

‘사람을 끌어들이기 때’, 취업 사례를 들어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학생들이 실제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을 때, 성공적인 취업사례는 훈련 기관에서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상응하는 전공과 우수한 학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기관에서 약속한 ‘취업 보장’은 종종 학생들이 멀리 귀저우(贵州)의 빅데이터 회사에 표식원으로 가거나 웹사이트 데이터관련 회사에서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 경우였다.

이 현상에 대응하여 필자는 2018 년에 AI 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는 프로그래머를 인터뷰했다. 상대방은 이러한 단기 교육 과정이 이미 특정 업무 경험과 개발 경험이 있는 ‘오래된 실무경력자’에게 더 적합하다고 밝혔다. 더욱이 교육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의 목적은 최종적으로 실제 취업의 출구를 찾는 것이고, 반드시 AI 알고리즘 직무나 머신러닝 엔지니어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천받는 과반수 이상이 알고리즘, 데이터 분석 등과 관련된 직무이며, 경험을 축적하여 더 나은 직위로 가게 된다.

그는 또한 1 선 도시 개발자들이 이미 취업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기에, 훈련 기관이 사람들을 실제로 ‘고시지’는 않기 때문에, 많은 교육 기관이 새로운 1 선 또는 2 선 도시에서 막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에게 고가의 주숙형 폐쇄학습 코스를 홍보한다. 구직 활동 그룹에서 그는 ‘AI 학습’에 고가를 지불하여 교육받은 후, 자신의 학력으로는 아주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없음을 알게 된 후, 교육기관을 상대로 환불 심지어 권익보호를 요구하기 시작한 경력을 본 적도 있다. 최종 해결책은 교육 기관이 UI 개발 과정을 ‘무상 제공’하고, 지금은 이 학생이 청두에서 UI 디자이너가 된 것이다.

실제로 만약 우리가 ‘교육 혼란’ 현상을 제쳐 놓으면, 현재 모든 훈련기관의 AI 취업 포지셔닝과 실제 상황이 매우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훈련 기관의 AI 직무에 대한 포지셔닝 포는 모바일 인터넷 시대의 ‘UI 디자인’ 및 ‘iOS 개발’ 등의 개념과 동일하며, 보편성이 강하고 요구가 높다. 현재 모든 브랜드나 기구가 지금 앱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앱을 사용한다는 것은 iOS 개발과 Android 개발, UI 디자인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상황은 도리어 인공 지능은 본질적으로 노동 집약적 기술이 아니며, 이 기술은 아주 쉽게 SDK 화되며, 미래 모든 모든 기업이 AI 를 적용해야 하더라도, 모든 기업에 알고리즘 엔지니어나 머신 러닝 엔지니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사실 이것은 위로는 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화웨이부터, 아래로는 AI 유니콘들이 모두 기대하는 그림이다.

‘인재’가 필요한 것이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훈련 기관의 ‘앞 사례를 보고 교훈을 삼은 후’, 올해 이러한 인공 지능 전공이 AI 분야에서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게 된 것일까? 이제 일부 사람들은 AI 전문 분야가 그해의 ‘생물 과학’이라고 농담하며 조롱하기도 했지만, 듣기에는 고상해도 진정 취업할 때가 되자 도리어 현실에 맞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전문에 모든 ‘경쟁이 치열하다’고 언급한 모든 직군에서 주의해야만 한다. 종종 모두 알고리즘 엔지니어이고, ‘AI 과학자’의 헤드 카운트는 도리어 모든 사회를 향해 영원히 열려 있다. AI 는 노동 집약적 기술이 아니라 두뇌 집약적 기술이므로, AI 는 ‘사람’이 아니라 인재가 필요하다. 개발자는

‘사람’과 같이 GitHub 로부터 복사 및 붙여 넣기를 수행하며, 지속적인 조정 후에도 결과를 쉽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인재’와 같이 기술 혁신은 도리어 아주 어렵다.

따라서 대학이든 학생 자신이든 모두 혁신적인 AI 인재 창출에 힘을 써야 하며 한 때의 노동력을 쏟아내는데 분주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훈련 기관 또한 ‘AI 전문 교육’이라는 전복하기 쉬운 딱딱한 몸체에 집중하기 보다는 넓은 범위의 직군으로 전향하여 다양한 직무의 근무자들이 어떻게 AI 를 사용할 것인지 가르치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 영업 엔지니어에게 고객에게 AI 기술을 설명하도록 가르치는 방법, HR 에게 연구 유형의 기술 담당자와 소통하는 방법, 콘텐츠 종사자가 권장 알고리즘을 잘 이해하는 방법 등등. AI 는 노동 집약적일 필요는 없지만, 보편성 때문에 ‘인지 집약적’이어야 한다. 아마도 인지를 배양하는 것은 노동력을 배양하는 것만큼 중요할 것이다.

2.한국 자율주행 알고리즘 회사 ‘스트라드비전’, B 라운드 파이낸싱에서 2,700 만 달러 유치 (투자계, 2019.12.20)



사진 1) 출처: 네이버 이미지

한국의 자율주행 알고리즘 회사인 ‘스트라드비전스트라드비전 Vision’은 12 월 20 일 시리즈 B 라운드 파이낸싱에서 2,700 만 달러를 유치했다고 발표했다. Posco Capital 이 선도 투자했으며, IDG Capital, 한국산업은행, Beacon United Investment, LSS 사모주식투자, 미래에셋 벤처캐피탈, 네오플렉스와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이 이어서 투자했다. 이번 자금 조달 후 스트라드비전은 총 4 천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으며 자율 주행 (카메라) 시각 인식 기술 개발에 계속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스트라드비전은 영상 처리 기술 산업의 선도기업으로서, 자율 주행 차량에 신뢰할 수 있는 센싱 솔루션을 제공하는 동시에 운전 자동화 수준을 개선하고 사고율을 줄이며 운전자와 승객의 운전 안전을 보장한다. 딥 러닝 SVNet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스트라드비전은 높은 수준의 인식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주요 기능으로는 차선 감지, 신호등 및 신호 감지/인식, 물체 감지 및 여유 공간 감지가 있다.

스트라드비전은 최근 AutomotiveSPICE CL2 인증과 GB (China National Standard)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과학적 관리 시스템에 의해 검증된 소프트웨어는 이미 중국 도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에 배치되었다.

스트라드비전은 중국과 유럽 고객과의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중국과 유럽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계속 수행할 계획이며 2021 년까지 스트라드비전의 자율 주행 및 ADAS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SUV, 자동차, 버스와 트럭을 포함한 수백만 대의 차량에 장착해 전 세계 고속도로를 운행하게 할 계획이다.

스트라드비전의 CEO 인 김준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용자는 스트라드비전의 ADAS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자동차 제조업체와 공급 업체들에게 성공적이고 매우 매력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한 것입니다. 스트라드비전은 이 자금을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개발에 계속 투자하여, 자율 주행 차량 시각 감지 기술 발전을 이끌 것입니다.”

3.Didi Chuxing 일본 음식배달 시장에 진출 (텐센트과기, 2019.12.20)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맛별이와 한부모 가정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일본 음식 배달 서비스 시장은 계속 확장되어 점점 더 많은 회사가 일본 음식 배달 사업에 진출했다.



사진 1) 출처: 텐센트과기

일본 언론은 중국 온라인 공유자동차 회사인 Didi Chuxing 이 2020 년에 일본에서 온라인 음식 배달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것은 또한 미국플랫폼 Uber 후, 또 다른 해외 회사가 일본 음식 배달 시장에 합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DiDi Mobility Japan 은 2020 년 2 월 오사카에 음식 배달 서비스를 개설한 후 점차 일본 전역으로 확장할 계획이며 이름은 'DiDi Food'로 잠정적으로 지정되었다. 자전거와 자동차가 있는 개인은 Didi 배달원으로 등록하고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한 주문에 따라 배달을 할 수 있다. 또한 Didi 는 배송 중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물품 손상을 입히는 경우와 같은 각종 보장과 보상 조치를 수립할 계획이며, 배달원이 부상을 입었을 때 Didi 는 의료비와 입원비를 지불할 것이다.

Food delivery service market size (billion y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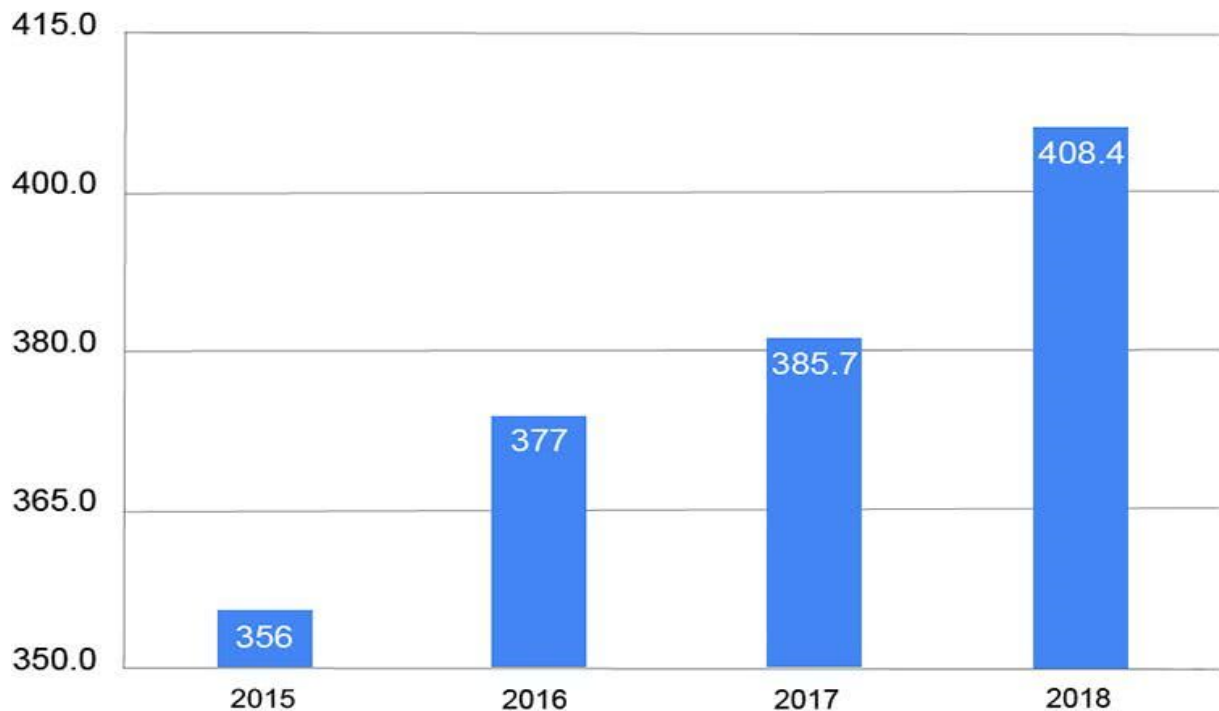


표 1) 출처: 텐센트과기, 일본 음식배달 시장의 규모는 해마다 확장되고 있다

잘 알려진 일본 데이터 회사인 btrax 의 통계에 따르면 2018 년 일본 음식 배달 시장 규모는 4,400 억 엔 (약 38 억 달러)으로 전년 대비 5.9 % 증가했다. 특히 점점 더 많은 서비스 제공 업체가 유입되면서, 더욱이 미국의 Uber Eats 가 2016 년 9 월 일본으로 사업을 확장한이래, 일본 음식 배달 시장은 줄곧 증가하고 있다. 영국, 중국, 독일 등 다른 국가에 비해 일본의 음식 배달 서비스 시장은 여전히 작다. 그러나 음식 배달 시장에서 새로운 참가자의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이는 분명히 Didi 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사진 2) 출처: 텐센트과기, 일본 음식배달에서 1 위는 피자



사진 3) 출처: 텐센트과기, 일본 음식배달 순위에서 2 위는 스시와 라면, 3 위는 중식

그러나 Didi 가 직면한 또 다른 문제는 일본 도처에서 접할 수 있는 편의점이 배달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며,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일본에는 55,000 개의 편의점이 있다고한다. 일본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편의점은 일본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다. 특히 도쿄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편의점이 특히 많이 있다. 음식 배달 서비스 시장이 여전히 작은 또 다른 이유는 대부분의 온라인 음식 배달 서비스가 아직 농촌 지역에서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이러한 농촌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편의점이 거의 모든 곳에 있다. 따라서 편의점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다양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음식 배달 사업의 진정한 경쟁자인 듯하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모바일 결제에 주저하고, 많은 일본인들은 여전히 온라인 결제 시스템이 안전하지 않거나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주로 전화로 주문한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PC 와 스마트폰/태블릿을 통해 주문한 모든 주문의 합계 이상이다. 일본인 인구의 3 분의 1 이 60 세가 넘었고, 많은 일본인 노인이 복잡한 스마트 폰을 어떻게 쓸 줄 모르며, 기술에 압도되어 새로운 결제 애플리케이션과 웹 사이트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 지식이 부족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LAWSON

商品・おトク情報

エンタメ・キャンペーン

ポイントカード

サービス

研究所

ご予約商品

会社情報

Home > 商品・おトク情報 > オリジナル商品 > お弁当

お弁当



7月16日発売
これが ハンバーグ弁当
673kcal
550円(税込)



新発売
鶏ざんまい弁当
644kcal
498円(税込)



新発売
鶏の照りマヨご飯(一味マヨソース)
430kcal
399円(税込)
※北海道・中部・九州・沖縄地域のローソンではお取り扱いしておりません。



今日も爆がらせ弁当
529kcal
498円(税込)
※ナチュラルローソンではお取り扱いしておりません。



お手軽和風幕の内弁当
598kcal
399円(税込)



鮭ひじきご飯の幕の内
479kcal
498円(税込)



これが 幕の内弁当
545kcal
550円(税込)



これが のり弁当
722kcal
420円(税込)

사진 4) 출처: 텐센트과기, 일본내 편의점이 음식배달 비즈니스 최대의 적수

4. BBC 다큐멘터리도 이만 못하다: 중국 농촌의 큰 가능성을 연 생생한 영상 (티타늄미디어, 2019.11.29)

“지금 창업하지 않으면, 다시 몇 년이 지나도 자신에게 그만두자고 철저히 경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 평생이 결국 그렇게 됩니다.”

이 말은 반평생을 황토와 마주하고 살아온 부녀, 한 명의 산동 농민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이 말을 포착한 것은 지아보(焦波) 감독의 렌즈로, 다큐멘터리 ‘타오바오마을(淘宝村 Taobao Village)’에 통합되었으며, 중국 시골의 씩씩이 살아있고 미래를 창조하는 역량을 찾기 위해, 지아보는 팀을 데리고 중국 7 개 마을에서 365 일 동안 중단없이 촬영하며 2943 시간의 원형 생체 비디오 자료와 500:1 초고화질 비율로 편집되었다. 단련해온 이 몇 년 내에 타오바오 마을이 중국 농촌에 변화를 가져왔다.

모든 변화는 ‘작은 가능성’에서 나온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다.

이로 인해, 2019 년 11 월 27 일, ‘타오바오 마을(淘宝村 Taobao Village)’은 업계내에서 가장 학술적이며 영향력있는 기관상인 제 25 회 중국 다큐멘터리 아카데미 어워드 시리즈에서 우수 작품을 수상했다.

이 상은 또한 10 년 만에 타오바오 마을이 생소한 용어에서 사회현상으로 변한 것에 대한 증거였다. 별의 불꽃에서 각각의 삶의 방식으로, 비즈니스 혁신에서 사회 혁신으로 변모한 것을 보여준다.



사진 1) 출처: 티타늄미디어, 다큐멘터리 '타오바오마을' 영상 캡처

2009 년에 첫 번째 타오바오마을은 장수성 샤지전동풍촌(江苏省沙集镇东风村)이다. 그 해 전국의 타오바오 마을은 단지 3 개에 불과했다. 10 년 동안 중국의 타오바오 마을(淘宝村) 수는 4,310 개로 증가했고 타오바오타운(淘宝镇)은 1,118 개에 이르렀으며 2 억 5 천만 명의 인구를 포함하고 있다. 들판을 태울 수 있는 작디작은 불씨가 시작된 것이다.

작년에 전국의 타오바오 마을과 타오바오 타운의 온라인 매장 총 연간 매출은 7000 억 위안을 초과하여 683 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수많은 데이터가 이 다큐멘터리 안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경제학 강의가 아니라 농촌의 생동감 넘치는 진실된 사례이며, 첫번째로 농민들이 토지에서 인터넷으로 나오며 수많은 희로애락을 겪고, 수많은 실패와 고난을 겪어졌던 여정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렌즈 밖의 타오바오 마을은 중국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작년 말에 태국 상무부는 'Smart Village Online'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태국 상무부 아래 사업 개발부 부총간사 Lalida Jivanantapratvat 는 이 계획은 중국의 타오바오 마을을 방문한 후 나온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첫번째로 내놓는 5 개 공동체는 '타오바오 마을식'의 원형으로, 지역 사회의 힘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하며, 태국은 현지 전자 상거래 커뮤니티를 만든다.

2019 년 4 월 어느 날, 말레이시아의 '두리안 여왕'인 장리주(张丽珠)는 절강 항저우에서 백 킬로미터 떨어진 바이뉴마을(白牛村)에 왔으며 40 여명의 말레이시아 기업가 모두 충격을 받았다.

농사를 짓고 전자 상거래에 종사하는 농부는 집 문앞에 모두 좋은 차를 주차했다. 중국의 농촌 지역은 이렇게 매우 부유하다.

올해 Tmall 쌍십일절 이전에는 말레이시아 버전 타오바오 마을의 첫 번째 상점이 이미 lazada 에 올려졌다. 그들은 중국의 성공 모델을 말레이시아에 복제했다.

중국 타오바오 Village Summit Forum 에서 DESA (말레이시아어로 촌락)의 창업자는 "우리가 현재 하려고 하는 것은 '타오바오 마을'이 말레이시아에서도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진 2) 출처: 티타늄미디어. 목제로 된 미국기의 80 %가 산둥성 카오현에서 생산되며, 타오바오 마을이 점차 중국 전역에서 유일한 중국 목제품 국가간 전자 상거래 산업벨트로 성장했다.

ISSUE 및 시장동향

1.리즈치 배후의 왕홍 해외진출열풍 - 봉황과기 제공

12 월 19 일 기준, 리즈치(李子柒)의 YouTube 구독자 수는 764 만 명, Facebook 팬 수는 290.8 만 명이다. YouTube 의 왕홍 데이터를 분석하는 플랫폼 인 NoxInfluencer 는 리즈치(李子柒) 채널의 종합적인 영향이 중국지역에서 1 위, 전 세계 809 위에 올랐다고 했다. 이 달의 광고 수익은 78,000 달러로 약 546,709 RMB 로 추정된다.



사진 1) 출처: 봉황과기, 리즈치(李子柒)

2019 년 10 월 18 일, 중국외문국당대중국과 세계연구원이 발표한 <중국국가 이미지 글로벌 조사보고 2018>에 따르면 해외 응답자의 눈에 중국 음식 (55 %), 중약 (50 %), 무술(46 %)이 여전히 중국 문화를 가장 잘 대표하는 세 가지 측면이다. 현재 YouTube 에서 가장 인기있는 중국 왕홍들이 실제로 그 조사결과를 실증해준다. YouTube 중국지역 상위 3 위의 '사무실 작은 야만인', '리즈치'및 '디엔씨 작은 형'비디오의 내용은 모두 '미식 무음 비디오'이며 언어 장벽을 낮춰, 외국 사용자가 중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창을 제공한다.

그러나 왕홍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다음 '리즈치'가 되기는 쉽지 않아 경쟁 장벽과 수익 창출 모델은 여전히 탐구해야한다. 올해 10 월, MCN 에이전시 담당자는 '2019 슈퍼 인기인 페스티벌'에서 지난 3 년 동안 수백 명의 왕홍들이 Youtube 나 Instagram 과 같은 해외 플랫폼을 통해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데뷔하기'를 시도했지만 현재는 거의 전체가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고 털어놓았다.

해외로 간 리즈치: 외국 네티즌의 심중의 '전원요정'

해외로 가는 것은 지난 2 년 동안 자주 언급된 단어다. 많은 국내 왕홍들이 트래픽소강과 밀집현상으로 고민할 때, '리즈치'는 성공적으로 해외에 진출했다.

12 월 19 일, YouTube 유명 인사 데이터를 분석하는 플랫폼인 NoxInfluencer 는 리즈치채널의 팔로워가 760 만 명으로 중국지역에서 2 위, 전 세계에서 809 위를 차지했다. 이 달의 광고 수익은 78,000 달러 약 RMB 546,709 로 추정된다. 또한 국제 영향 요인 통계 플랫폼 HypeAuditor 의 통계에 따르면 '방법 및 스타일(How-to & Style)' 범주에서 팬 수, 좋아요 수, 상호 작용 등과 같은 각종 데이터에서, 리즈치의 미국에서의 종합 영향력은 세 번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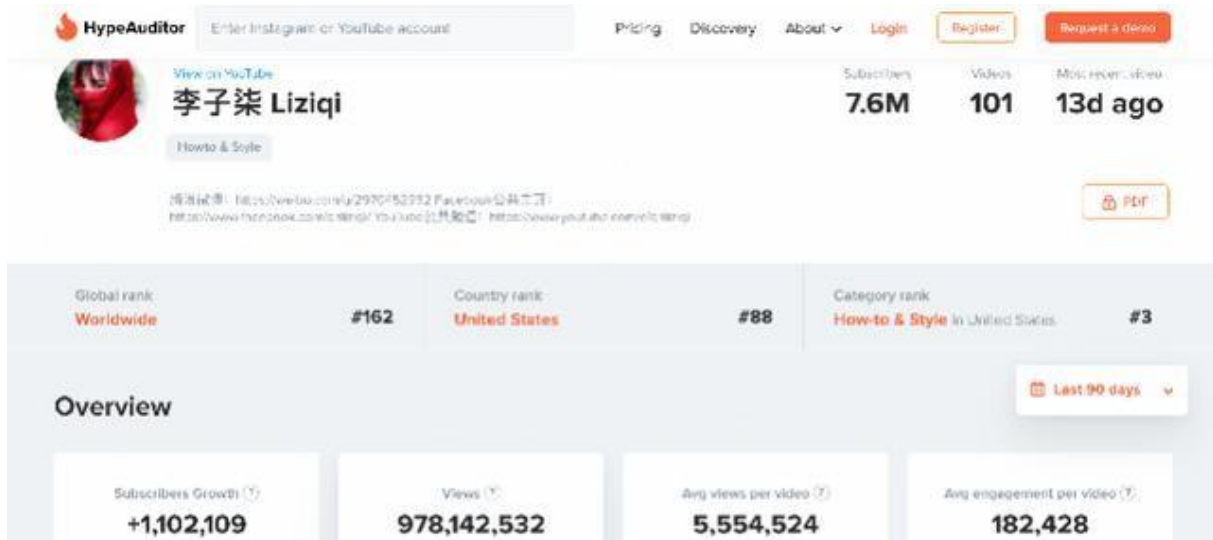


사진 2) 출처: 봉황과기, YouTube 에서 2 년 동안 활동한 리즈치는 동영상 수가 가장 많은 104 개의 동영상을 출시.

그녀의 비디오 콘텐츠는 시골 생활에 중점을 둔다. 한 쌍의 영리한 손으로 대나무를 소파로 만들 수 있고, 오래된 나무를 그녀와 싱크대로 바꿀 수 있으며, 벽돌, 맥주병, 진흙을 그 자리에서 빵 가마로 만들 수 있다. 비디오 타이틀과 자막은 중국어와 영어로만 제공된다.

그러나 이것이 전 세계 네티즌들의 열의를 방해하지는 않았으며 항상 '진정한 인생입니다' 정원의 엘프'라는 찬사를 받는다.

항저우 인터넷 회사의 알고리즘 엔지니어는 YouTube 와 국내 짧은 비디오 플랫폼 알고리즘 메커니즘이 약간 다르다고 말했다. "YouTube 는 백만 레벨의 정확하고 개인화 된 추천으로 비디오 제작자들이 장기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다단계 순위 알고리즘, 시청 시간은 동영상의 권장 여부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입니다. 매력적인 헤드 라인과 표지는 트래픽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트래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완료율이 가장 중요한 지표이며, 콘텐츠 제작자가 비디오 품질에 대해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장려합니다."라고 말했다.

3 개 '중국미식채널' 가장 인기

NoxInfluencer 통계에 따르면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성공적으로 실현된 유일한 중국 인터넷 유명인은 상위 3 명의 'Ms Yeah Official Channel', 'Li ziqi', 'Dianxi Xiaoge' 뿐이다. 세 비디오 모두 '미식영상'으로 길이는 5 분에서 10 분 사이이며, 출연자의 언어는 거의 없으며 영어 자막을 사용하여 전 세계 네티즌이 이해할 수 있다.



사진 3) 출처: 봉황과기, Ms Yeah Official Channel 办公室小野



사진 4) 출처: 봉황과기, Dianxi Xiaoge 滇西小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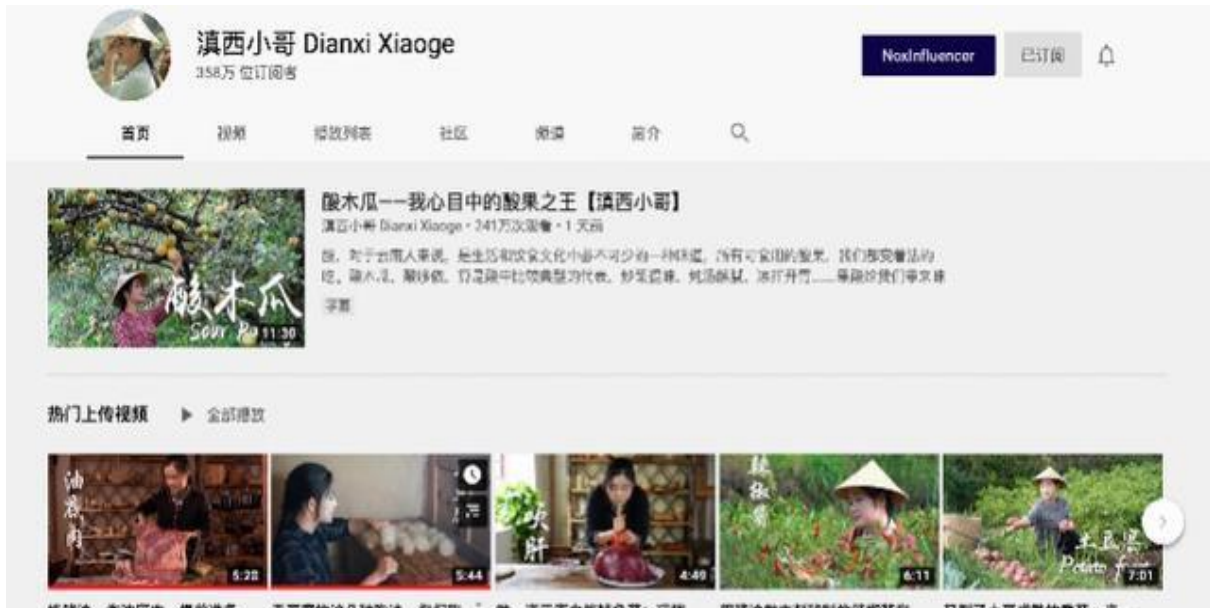


사진 5) 출처: 봉황과기, Dianxi Xiaoge 滇西小哥

일찍이 중국어 영화 드라마의 해외 전문가인 천타이란(陈泰然)이 이런 관점을 말한 바 있다. “서방 국가들은 중국에 대해 낭만적이고 신비로운 동방 국가의 이미지를 갖고, 다양한 예술적 상상력, 끝없는 호기심과 엿보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왕홍 배후의 운영자: 전문 MCN 기구

중국 왕홍의 해외진격 배후에는 전문 MCN 기구가 있다.

미국에서 태어난 MCN 은 다중 채널 네트워크 (Multi-Channel Network)의 약자이며 콘텐츠 제작자와 비디오 플랫폼 사이의 중개자다. MCN 은 콘텐츠를 생산하지는 않지만 제작, 홍보, 합작 관리, 자본 등 방면에서 힘있는 지원을 바탕으로 많은 취약한 콘텐츠 창작자를 모아 홍보 및 수익 창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채널을 구축하고, 최후에 일정한 비율로 창작자와 나누어가진다.

Crowray 가 발표한 <중국 MCN 산업 2019 개발 백서>에 따르면 2018 년 12 월을 기준으로 기관 수가 5,000 개를 초과했으며 상위 유명 인사의 90 % 이상이 MCN 회사에 포함되었거나 이미 자체적으로 MCN 을 설립했다.

많은 팬과 트래픽을 보유한 리즈치는 이미 그 뒤에 명확한 비즈니스 맵을 가지고 있다. 2016 년 리즈치는 웨이보에서 팔로워가 9,000 명에 불과할 때, 쇼트클립 MCN 회사인 웨이니엔과기(微念科技)와 계약을 체결했다. Tianyancha (天眼查)의 데이터에 따르면 항저우 웨이니엔 과기 유한공사(杭州微念科技有限公司)의 등록 자본금은 520.08 만 위안이며, 쇼트 클립을 통해 KOL 을 IP 로 인큐베이션하고, 소비자 브랜드로 확장하는 엔터테인먼트와 소비를 넘나드는 회사다. 2016 년 8 월부터 현재까지 웨이니엔은 편의 식품, 주류, 요식업 및 숙박 시설, 의료 원예, 의류, 신발 및 모자 등과 같은 범주를 포함하여 ‘리즈치’ 지적재산권에 대한 100 개 이상의 정보를 등록했다. 2018 년 류통밍(刘同明)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리즈치의 브랜드 주조에 따라 최종적으로 파고든 것이 ‘중국 전통 문화 속에 현대 젊은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트렌드음식’이라고 밝혔다.

디엔씨 작은 형(Dianxi Xiaoge)은 2017 년에 papi 장팀의 papitube 와 계약한 후 빠르게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2019 년 웨이보 유명한 페스티벌에서 디엔씨 작은 형(Dianxi Xiaoge)는 '올해의 영상 유명인', '상품 판매 유명인' 및 'Top Ten 영향력있는 미식 대 V'라는 3 개의 상을 수상했다.

무대 뒤에서 전체 판을 운영하는 'Ms Yeah Official Channel(办公室小野)'의 MCN 은 청두 양파 신미래네트워크기술 유한공사(成都洋葱新未来网络科技有限公司) 이다. 스스로 분발하는 도시 화이트컬러 여성의 IP 를 만들기 위해 애쓰며, 양파 비디오의 '첫 번째 성숙한 작품'이다. 회사의 법인대표 니에양더(聂阳德)는 일찌기 인터뷰에서 해외로 나가는 성공적인 경험을 한 번 소개했다. 핵심은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그것을 큰 IP 로 양성하고 더 가치있게 만들어야 한다.'

공개 연설에서 그는 'Ms Yeah Official Channel(办公室小野)'의 영상 스타일을 '파편 흐름'으로, '스타일은 만들 수 있고, 의사 소통이 가능하고, 수준이 너무 낮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양파그룹 국제화 담당자인 진췌저(晋煦则)는 해외로 진출하는 왕홍을 만들려면 고려해야 할 세부사항이 너무 많이 있다고 주장했다. 인기있는 'Ms Yeah Official Channel(办公室小野)'의 경험을 바탕으로 MCN 기구는 자체 콘텐츠 포지셔닝을 설정한 다음, 플랫폼 운영을 선택해야 한다. 이중 계정 설정 방법, 콘텐츠 게시를 위한 표제 전략, 커뮤니티 운영 방식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다.

차기 '리즈치'가 되기는 쉽지 않다. 경쟁 장벽과 수익 창출 모델을 여전히 탐색해야 한다.

리즈치의 성공은 사람들로 하여금 부러움을 사게 했지만, 다음 리즈치가 되기는 쉽지 않다. 본토 왕홍이 해외로 나가는 데에는 허다한 도전에 직면해야 하며, 경쟁 장벽과 수익 창출 모델을 여전히 탐색해야 한다.

세계적인 관점에서, 진정으로 해외진출에 성공했고 좋은 표현을 보여주고 있는 중국 왕홍은 Ms Yeah Official Channel(办公室小野), 리즈치(Li Ziqi), Dianxi Xiaoge 滇西小哥 뿐이다.

'2019 슈퍼왕홍 페스티벌'에 참여한 MCN 기구의 담당자는 지난 3 년 동안 적어도 수백 명의 인터넷 유명 인사들이 Youtube 및 Instagram 과 같은 해외 플랫폼을 통해 중국 밖에서 '데뷔'하려고 했지만 현재는 군대 전체가 거의 소멸했다고 털어놓았다.

Ms Yeah Official Channel(办公室小野)를 인큐베이팅한 니에양더는 초기에 왕홍 영상을 해외에 선보일 때 비디오의 배경 음악 및 기타 자료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 침해 소송을 당했다고 회상했다. 한편, 제작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의 관습과 습관을 미리 이해해야 한다. 그는 또한 양파비디오가 해외에 다른 왕홍을 밀려고 시도했지만 '이전의 효과는 그리 좋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파그룹의 국제화 책임자인 진췌저는 "운영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0 에서 1 만 팬까지의 춤게 느껴지는 스타트 기간이며, Ms Yeah Official Channel(办公室小野)와 같은 잘 알려진 IP 의 경우에도 해외 운영에서는 0 부터 시작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항저우 인터넷 회사의 알고리즘 엔지니어는 상대적으로 국내 쇼트클립 플랫폼이 '새롭고', '기이한'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초기 시작시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트래픽을 제공한다고 기자에게 설명하며, YouTube 플랫폼의 권장 알고리즘은 '정보의 섬'에 더욱 가까워, 채널, 시청 기록, 장면 정보, 검색 기록에 따라 플레이된 비디오의 최고 및 최저 점수를 기록, 우수한 이전 비디오도 다시 주목받을 수 있다. "간단히 말해 비디오 블로거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지만 더 많은 관심을 끌기 위해 서클을

깨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따라서 YouTube 에는 매우 좋은 비디오가 구독자 수가 오랫동안 20,000-30,000 에 머물러 있는 것이 많습니다.”라고 알려줬다.

이외, 왕홍이 한데 모여 해외로 나간 후, ‘미식 영상’의 세분화 트랙에는 이미 많은 경쟁자가 있고, 상승 공간은 줄어 들었다. 미국의 야외 미식제작 채널 인 ‘Food my village’는 Li Ziqi 보다 늦게 YouTube 에 들어왔으며, 내용이 Li Ziqi 보다 훨씬 덜 정교하고, 현재 이미 161 만의 구독량을 보유하고 있다.

Dianxi Xiaoge(滇西小哥)를 인큐베이팅시킨 papitube 의 총재 휘니팡(霍泥芳)은 인터넷 왕홍대회에서 모든 왕홍들이 해외 진출에 적합한 것은 아니라고 직언했다. 비록 회사는 Dianxi Xiaoge(滇西小哥)를 유명하게 한 후 왕홍 해외진출 전략 계획을 수립했지만, ‘현재는 양질의 콘텐츠를 배합할 수 있는 국내 시장이 여전히 크다. 왕홍입장에서 맹목적으로 해외로 나가려는 시류를 추종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2.인도투자를 둔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전쟁 -신량창세기(新良创事记) 제공



사진 1) 출처: 신량

최근 Uber 가 UberEats 를 인도 식품 배송 시장에서 퇴출할 것이며, 이 업무를 경쟁상대인 Zomato 에게 판매한다고 선포했을 때 뜻하지 않게 Alibaba 의 그림자를 다시 보게 되었다.

관련 언론 보도에 따르면 Zomato 는 UberEats 의 인도 사업 합병 협상을 하기 전, 6 억 달러의 용자를 유치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Ant Financial 이 Zomato 를 위한 이번 자금 조달 라운드를 주도하고 있으며 Zomato 는 용자가 완료된 후 미화 30 억 달러의 가치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국내의 또 다른 과학기술 거두 텐센트도 마찬가지로 인도 시장에서 알리바바와 시장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현지 인터넷 창업 기업에 지속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2019 년 말까지 양대 인터넷 거인의 인도 투자 전쟁을 정리한 후 우리들은 더 가치 있는 정보를 볼 수 있다.

남아시아 아대륙을 위한 각축전

2014 년부터 2019 년 말까지 중국의 3 대 주요 거두(BAT) 중 Alibaba 와 Tencent 는 인도의 스타트 업을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있으며, 적지 않은 인터넷 스타트 업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여 현재 가치가 10 억달러 이상의 임계 값을 가지며, 인도 창업 분야에서 새로운 세대의 유니콘이 되었다.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5 년 동안 알리바바와 산하의 금융과학기술회사인 앤트 파이낸셜 (Anant Financial)은 최소 6 개의 인도 스타트 업에 투자했으며 그 중 5 개는 산업 유니콘이 되었다. Quartz 가 포착한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Tencent 가 투자한 스타트업 수는 12 개사이며 그 중 7 개사는 유니콘 평가에 도달했다.

인도 뭄바이에 본사를 둔 투자 회사 Iron Pillar 가 11 월 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Alibaba 와 Tencent 는 18 개사의 인도의 유명한 스타트 업에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것의 의미는 양대 거두가 인도의 현재 31 개사 유니콘 기업의 3 분의 1 을 주머니안에 넣었다는 것이다.

Ali 및 Tencent 의 인도 스타트 업에 대한 베팅은 중국 투자자의 투자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배경에 기인한다. 미국과 유럽의 기술 투자 환경과 비교할 때, 인도 및 동남아시아의 A 와 T 투자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Iron Pillar 의 집행파트너인 Anand Prasanna 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Alibaba 와 Tencent 는 인도에서 장기적인 중점 투자를 했으며 특히 소비류 과학 기술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이렇게 투자받은 스타트 업은 앞으로도 일정기간 계속 등장할 것이다.'

2015 년부터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인도의 전자 상거래, 주문형 서비스 및 모바일 결제 분야에 집중하여 막대한 금액의 돈을 투자했다. 이러한 조치는 또한 중국 시장과 관련된 세분화된 시장 부문에서 두 거인의 경쟁력을 확대했다. 2015 년 알리바바와 앤트 파이낸셜은 인도 최대 모바일 결제 회사인 Paytm (정확한 투자 금액은 공개되지 않음)에 거액의 투자를 했으며, Tencent 는 인도에서 가장 큰 의사/진단 서비스 플랫폼인 Practo 의 9 천만 달러 용자를 앞장서 이끌었다.

양자는 이후 선포하기를, 이러한 초기 거래가 모두 미래 인도에서 투자 전략과 방향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발표했다.

당시 뉴스에서 텐센트 (Tencent)의 투자, 합병 집행 동사인 천홍웨이(陈宏伟)가 일찍이, 텐센트가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야심차고 원대한 비전을 가진'인도 인터넷 스타트 업을 찾고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음을 찾을 수 있다.

동시에 알리바바도 회사는 글로벌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기를 희망하며, 특히 인도의 '번영하는 모바일 커머스 시장'에 직면하여 투자 역량을 계속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3) 출처: 신랑

Iron Pillar의 집행파트너인 Prasana는 이를 분석한다. 전반적으로 Alibaba는 Paytm, Zomato와 같은 소수 회사에 더 많은 자금을 배팅할 것이지만,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더 많이 확보할 것이다. Tencent의 전략은 여러 스타트업에 배팅하여, 더 많은 스타트업에서 비교적 작은 지분을 획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리바바와 앤트 파이낸셜은 이미 Paytm 몰, Paytm 산하의 온라인 소매점, 음식 배달 플랫폼 Zomato, 일용품 전자 상거래 플랫폼 Bigbasket, 전자 상거래 플랫폼 Snapdeal, 물류 회사 Xpressbees를 포함한 인도 회사에 투자했다. 공개되지 않은 Xpressbees의 평가를 제외하고 5개의 회사 모두 유니콘 타이틀 (가치 평가가 10억 달러에 도달)이 부여되었다. 그 중 Bigbasket은 10억 달러를 초과하고, Snapdeal은 70억 달러를 초과하며, Paytm의 가치 평가는 더욱 높아 150억~160억 달러로 평가된다. 알리바바는 현재 Paytm의 단일 최대 주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동시에 Tencent는 일부 Alibaba가 투자한 회사의 시장 경쟁 업체에도 투자했다. 예를 들어 Tencent는 항상 Zomato와 줄곧 첨예하게 대립하는 음식 배달 기업 Swiggy에 투자했다. Swiggy는 인도의 500개 도시로 서비스를 확장했으며, 이는 Zomato의 사업 범위에 해당한다. Tencent 등 투자자의 자금수급에 따라 Swiggy는 지난 6개월 동안 60,000개의 새로운 요식업 회사와 합작을 증가시켰다. 이 회사의 대변인은 10월 말 언론에 2019년 12월 말까지 600개 도시로 사업을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Tencent가 투자한 Flipkart는 줄곧 인도 최대의 전자 상거래 플랫폼이었다. 소매업 거두인 Wal-Mart는 2018년 8월에 총 160억 달러의 투자로 Flipkart 인수를 공식적으로 완료했다. Wal-Mart는 인도 최대 전자 상거래 플랫폼의 대주주가 된 후, 인도 시장에서 아마존에 대한 반격을 시작했다. 현재 인도 시장에서 아마존과 월마트는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동시에 아마존의 온라인 판매는 Snapdeal과 Bigbasket을 능가했다.

또한 Tencent가 투자한 유니콘에는 인스턴트 메시징 애플리케이션 Hike, 공유 차량운행 플랫폼 Ola, 학습 애플리케이션 BYJU, 드림 게임 플랫폼 Dream1, B2B 거래 플랫폼 Udaan도 포함된다.

阿里巴巴		腾讯
2015	Paytm, Snapdeal	*Practo
2016		Hike
2017	Paytm Mall, Bigbasket	Flipkart, Ola, BYJU's
2018	Zomato, *Xpressbees	Swiggy, Gaana*, Dream 11
2019		*NiYO, *MX Player, *Khatabook, Udaan

*号为非独角兽规模的初创企业

표 1) 출처: 봉황과기,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연도별 인도 투자 사례. *표는 비유니콘 규모의 스타트업

외부에서는 이 양대 거두가 인도 시장에 투자한 총액을 통계내기가 아주 어렵다. 왜냐하면 대다수 용자 횟수와 금액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적지 않은 투자 프로젝트에 SoftBank와 같은 다른 투자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도의 과학기술 인터넷 분야에서 양대 거두 중 누가 우위를 차지하였는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일부 외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인도에서의 투자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왜냐하면 이 회사의 특정 분야에 대한 투자 성과가 실망스럽기 때문인데 관망하는 태도를 갖기를 바란다. 현지 인도 언론에 따르면 Alibaba와 Tencent 모두 평론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중국 인터넷의 지난 10 년의 잔영

일부 공개 데이터 통계에 따르면 2019 년 12 월 10 일, 현재 인도에 대한 중국 기업의 투자 (벤처 투자 회사와 산업 기업)는 이미 80 억 달러에 도달했다. 10 년 전 이 수치는 2 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략 2014 년부터 시작되어, 중국 IT 및 인터넷 회사의 관심이 급증하기 시작했으며, 그 당시 인도에 있는 중국 회사의 투자는 2013 년 2.14 억달러에서 한번에 32 억 달러로 급증했다.

현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중국 기업의 인도 투자는 계속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중국 인터넷과 휴대폰 헤드 회사는 이 신흥 시장의 성장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 중 인도 인터넷 사용자의 빠른 성장을 포함하여, 현재 매월 활성 사용자 수가 4.5 억명을 초과하고, 매년 1.5 억대에 가까운 스마트 폰에 대한 막대한 수요가 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18 년 인도의 스마트 폰 출하량은 약 1.452 억대로 미래 연간 증가율은 10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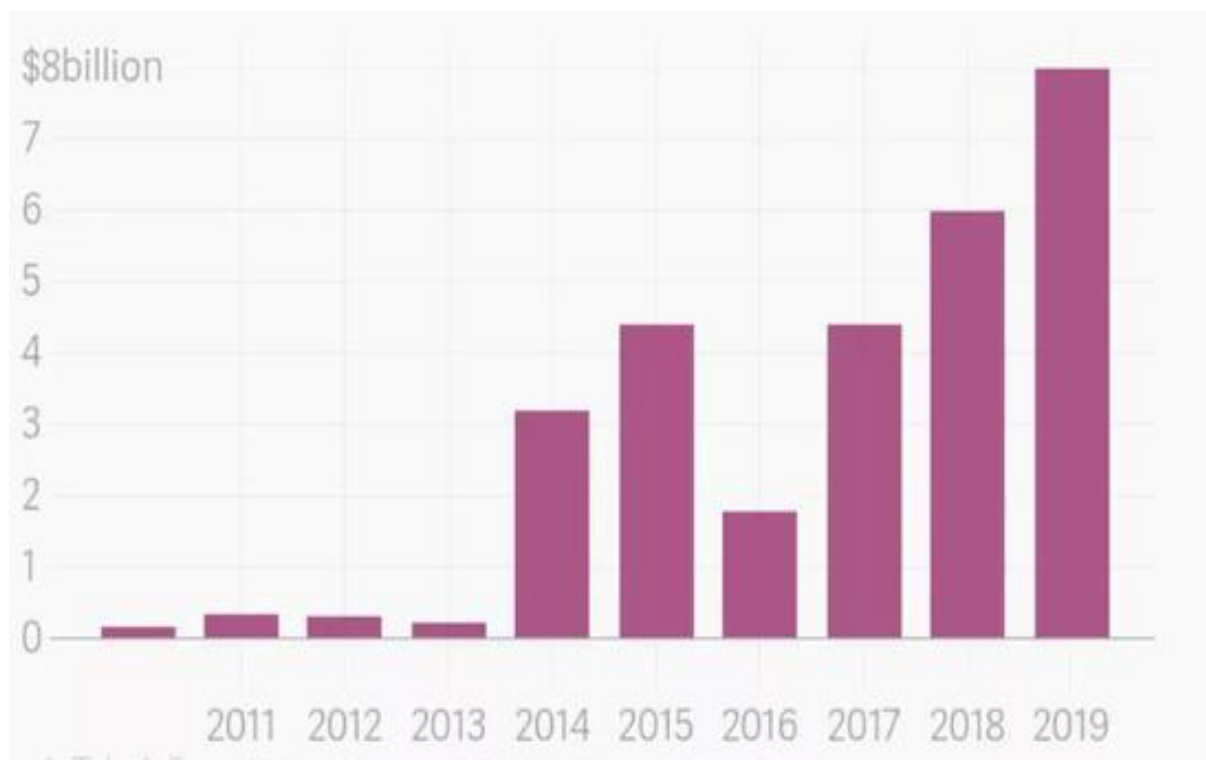


표 2) 출처: ATLAS.com, 2019 년 11 월 30 일 기준. 인도 과학기술 및 인터넷 분야에 대한 중국 기업 투자 상황

최근 몇 년 동안 인도 시장에서 활동해 온 다른 중국 투자 회사로는 스마트 폰 제조사인 Xiaomi(이미 엔터테인먼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영역에 투자)와 중국 대기업 푸싱그룹(复星集团)이 있으며, 푸싱계열은 현재 이미 5 개 이상의 인도 신생 기업에 투자했으며 물류 회사 Delhivery, LetsTransport, 여행 검색 엔진 Ixigo.com 를 포함한다.

인도 신생 기업의 성장 모델은 중국 동종업계와 매우 유사하다. 예를 들어 Flipkart 류는 국내 Jingdong 전자 상거래와 유사하고, Zomato 류는 국내 메이투안(美团点评)과 유사하며 Ola 는 공유 운행 거인 Didi 와 같다. 이것이 관련 영역 전문가의 인도 과학기술 인터넷 스타트업 시장에 대한 평가다.

더 많은 중국 투자자들에게 인도는 10 여 년 전에 중국 인터넷 영역의 창업 열기를 상기시킨다. 당시에는 3 개의 주요 포털이 매우 전성기였고, BAT 가 등장했으며, TMD 는 여전히 배양중이었다. 오늘날 중국 투자자들은 올바른 선택을 통해, 인도 시장에서의 BATJ 를 더 나아가 미래에 더 많은 새로운 스타를 배양할 수 있기를 바란다

3. 씽한캐피탈의 투자 이념: 프로젝트의 가치를 중시하고 강한 세계관을 가진 창업가 - IT 오렌지 제공



사진 1) 출처: IT 오렌지(IT 桔子) 씽한캐피탈 창업파트너 양꺼

이번 '겨울'은 특별히 춥다——IT 오렌지 데이터에 따르면, 2019 년 11 월말까지 2019 년 중국신경제영역에서 총 3809 건의 소송사건이 발생하여 2018 년 동기대비 42.93% 감소했다. 이것은 이미 5 년차에 접어든 중국신경제영역 투자사건수량이 감소상태로 접어들었음을 뜻한다.

이러한 차가운 겨울은 창업가에게 있어 일종의 도전이며, 투자자에게 있어서는 기회와 도전이 병존하는 상황이다. 최근 우리는 씽한캐피탈(星瀚资本)창업파트너인 양꺼(杨歌)와 현재의 형세와 자본의 기회에 관해 대담을 나누었다.

씽한캐피탈(星瀚资本)은 2015 년 설립된 시장화 운영을 하는 전문적 투자기구이며, 산업업그레이드, 심도과학응용, 문화소비 등의 영역에서 초중기 프로젝트에 중점투자한다. IT 오렌지 데이터에서는 씽한캐피탈이 현재까지 총 50 여회 투자건에 참여했으며 전형적인 사례는 도시혁신형 문화생활 일체형매장 '엔지요우(言几又)', 중고 사치품교역 & 보수 서비스 플랫폼 '썬상(心上)', 인공지능칩 솔루션 제공사'쿤원커지(鲲云科技)'등이 있다.

프로젝트 판단: 가치의 체현

자본 '겨울'을 맞아 씽한캐피탈 창시파트너 양꺼는 경제조정기도 적극적인 면이 있다고 여기며, 한 편으로 우수한 프로젝트 가치를 체현할 수 있고, 다른 한 편으로 경제조정기도 프로젝트의 가치를 하강시켜 투자기구가 우수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경제조정기를 통과할 수 있는 회사여야 진정으로 좋은 회사다. 이 시기에 많은 회사가 모두 (진정한)가치를 드러낸다' 이러한 가치의 체현이 기업이 성장하는 능력이다.

예컨대 씽한캐피탈은 2019 년 7 월 일상용품 공급사 '활력 28(活力 28)'에 투자했다.

'활력 28(活力 28)'은 일찍이 유명한 국산브랜드였고, 1982 년 '슈퍼농축 무거품세제가루'를 출시하여 시장점유율이 80%에 달했다. 후에 외자 거대기업의 압력하에 점점 시장에서 약화되어, 2017 년 브랜드를 재시동했다. 재시동후 짧은 2 년의 시간내 '활력 28(活力 28)'은 중국 전역 14 개성에 진입했고 100 여개 도시에 오프라인 채널을 뚫고, 온라인 매장으로는 징통, 타오바오 계열 등 중국 주류 전자상거래플랫폼에 들어섰다.

투자획득 방면에서 지금까지 '활력 28(活力 28)'이미 2 라운드 용자를 완성했다.

'활력 28(活力 28)'용자기록			
일시	라운드회차	금액	투자사
2017.4.5	전략적 투자	비공개	쇼우지엔토즈본(首建投资本)
2019.7.26	엔젤투자	수천만원	도전자자본(挑战者资本)선두 투자 , 씽한자본(星瀚资本)

표 1) 출처:IT 오렌지, 2019.11.30 까지

동시에 자본'겨울'은 시장의 온도를 계속 하락시켜 가격도 낮추었다. 과거 몇 년간 자본의 창업투자시장에 대한 광풍적인 열기는 일부 인터넷회사의 평가 가치를 높였고 큰 액수의 교역도 빈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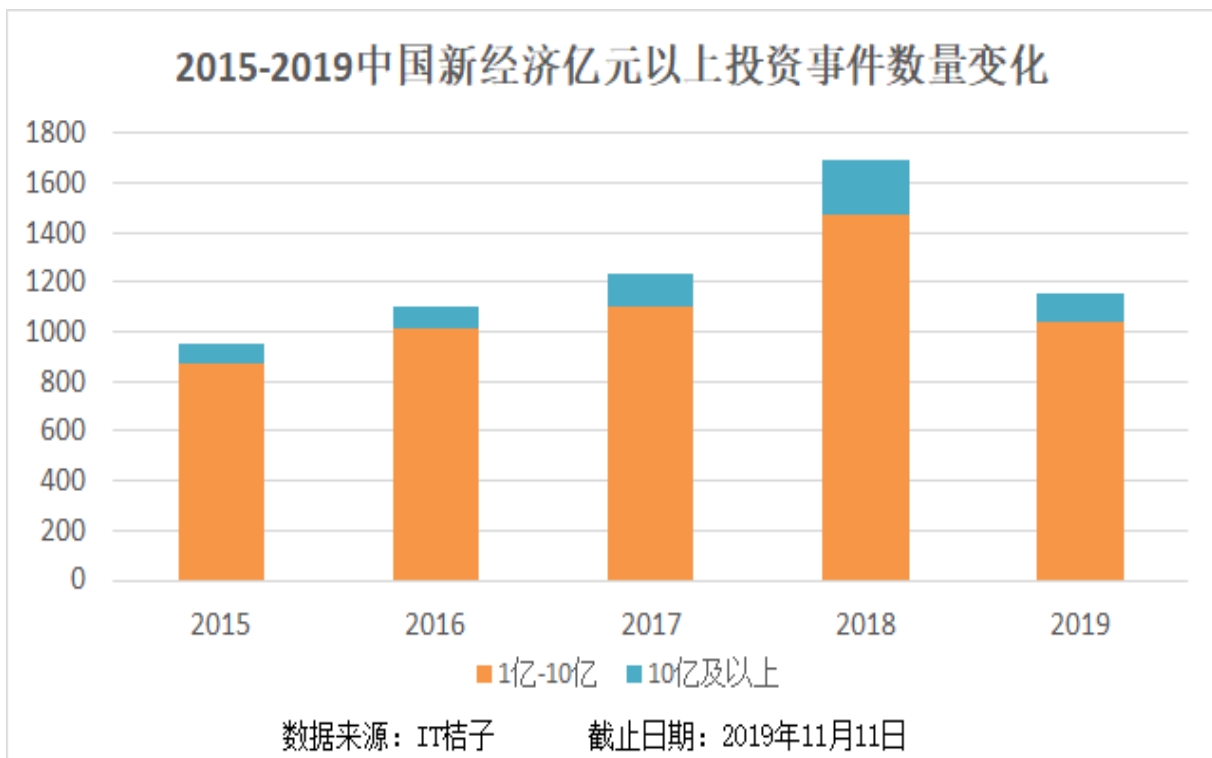


표 2) 2015~2019 중국신경제 억위안이상 투자건수 수량 변화. 주황색 1~10 억, 파란색 10 억이상. 2019 년 11 월 11 일까지 기록

IT 오렌지 데이터에 따르면 2015 년이후 중국신경제 억위안이상 투자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 년에 최고 정점을 찍고 총 1692 건의 억위안 이상 투자 안건을 보였다. 2019 년이후 이러한 국면은 전환되어 11 월까지 1 억위안을 초과하는 교역은 총 1151 건, 2018 년과 비교하여 31%감소했다. 교역규모가 10 억위안을 넘는 투자사안도 112 건으로 2018 년에 비해 48% 감소했다.

물론 기업가격 하락도 우수 프로젝트에 참여할 더 많은 기회를 준다. 이 때문에 썬한캐피털의 창시파트너인 양꺼는 현재 경제형세도 수많은 기회를 준다고 여긴다.

사람에 대한 판단: 지속성, 내구력과 세계관

기회는 외부환경이 주는 것이지만 한 기업의 가치 판단은 우수한 투자자의 고려에 있다. 썬한캐피털의 양꺼는 한 기업의 투자 가치는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여러 방면의 요소에 의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썬한캐피털은 주로 사람과 팀, 비즈니스, 재무, 법무의 4 대 방향에서 판단한다고 했다.

팀에 대한 판단은 곧 '사람을 보는' 능력이다. 썬한캐피털의 사람에 대한 판단은 매우 많은 구조로 되어 있다며 창업가에게 3 단계 라운드, 4 가지 포인트 6 가지 비즈니스 등 십여 개 구조 모두가 사람에 대한 판단이라고 했다.

끝까지 가도록 견지하는 능력은 창업가가 문제를 맞닥트린 후 문제와 곤란에 정면으로 대해 난제를 해결하는 생각을 말한다. 극도로 강한 내부 추동력이 필요하며, 창업가가 자신이 가진 역량과 믿음을 위해 창업 꿈을 펼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아주 정확한 세계관이 필요하다. 종종 성공한 창업가는 정확하게 세계를 인지하고, 원대한 관점에서 세계의 능력을 인지하고 있다.

당연히 너른 세계에서 상술한 3 가지 종류의 능력을 동시에 가진다는 것은 창업가 본인의 수양에 대해 매우 가혹한 것이다. 그러나 썬한캐피털의 양꺼는 자신이 이러한 사람을 만났다고 여긴다.

2019 년 3 월 썬한캐피털은 한 AI 영화오락 인터랙티브 과학기술기업 'rct studio'에 투자했다. 분포식 기계학습을 돕고, 자연어 처리 등의 AI 기술을 갖고, 헐리우드 영화와 게임산업을 재구성하며, 사용자에게 혁신적인 상호인터랙티브 체험을 준다.

rct studio 용자기록			
일시	라운드 차수	금액	투자사
2018.10.23	씨드머니 라운드	수백만 인민폐	썬한캐피털
2019.3.14	엔젤투자 라운드	100 만 달러	Y Combinator(선두 투자), 썬한캐피털

표 3) 출처:IT 오렌지, 2019.11.30 까지

이 회사의 창시자 뤄청(吕骋)은 창업을 연속적으로 해 본 사람이다——2013 년 소셜네트워크 플랫폼 'Timeet'을 창립했고, 2014 년 두야커지(渡鸦科技), 2017 년 두야커지가 바이두에 합병된 후, 그 팀이 바이두에 속해지고 바이두 스마트가전 하드웨어 총경리를 역임했다. 2018 년 뤄청은 다시 창업하여 rct studio 를 만들었다.

썬한캐피털의 창립파트너 양꺼는 뤄청의 세계인지능력을 매우 높이 산다. 그의 세계 인지는 매우 독특한 견해를 갖고 있다. 그는 이 세계를 볼 때 완전히 데이터화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숫자, 기술의 방식으로 이 세계를 이해하고 그는 각종 각도에서 이 세계 중의 하나(사물)가 존재하고 있는 가치와 합리성으로 묘사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그가 미지의 인지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보다 시대를 앞서게 만든다.

강대한 세계관은 창업자가 세계를 인지하는 정상부 건축이다. 강대한 세계관을 가진 창업가를 높이 여기는데 이러한 능력을 구비한 사람은 소수이며 '천재'이외 양꺼가 프로젝트에 대해 경쟁루트에 대해 깊이, 전방위적 인지를 가진 창업자를 좋게 본다.

세계에 대한 판단: 경제 조정기에 대한 이해

당연히 창업이든 투자가든 시기에 맞아 순조로워야 한다. 현재 외부 환경의 전체 변화는 창업투자권에 많은 불확정성을 안겨다주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씩한캐피탈의 양꺼는 여전히 낙관적 태도를 유지한다. 그는 현재의 '추운 겨울'이 경제조정기와 관련이 있다고 여긴다.

현재 시장은 중요한 경제구조 조정 단계다. 따라서 외부환경의 동요는 필연적으로 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준다.

설사 시장이 하행주기에 처했다해도 씩한캐피탈의 양꺼는 시장발전에 대해 여전히 믿음을 갖고 있다. 그는 현재 아직 더욱 긴 주기 차례가 있다며 —기술주기가 그것이라 한다.

1850 년좌우부터 현재까지 전력, 전가, 전기 발전이 전체 인류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왔다. 이것은 하나의 '전기주기'로 볼 수 있고 하나의 기술 대주기로 칠 수 있다. 현재 세계는 전체 전기주기의 말단기에 처해있다. 이때 전력발전과 아직 완전하게 발전하지 않은 양대 방향이 있는데 —데이터와 기계이다. 전통적으로 스마트제조라 칭한다. 현재 5G, IOT, 로봇, 인공지능 데이터는 여전히 생산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 동시에 다음 세대의 기술주기의 맹아가 이미 출현하고 있다. 이미 관련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 따라서 씩한캐피탈은 이러한 과학기술 영역의 시장에 충분한 신뢰를 갖고, 특히 생명과학과 기계전자가 결합한 영역이 우리가 다음 기회라고 여기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 가치 판단, 사람에 대한 가치 판단 나아가 세계 가치 판단, 결론적으로 말해 가치 판단에 대해 과거 경력은 자신의 판단 기준에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표준은 경제조정기가 가져온 명한 상태 또는 현재 환경이 가져온 긴장감 중에서도 씩한캐피탈 투자 중에 사용되고 있다. 양꺼는 이러한 표준을 견지하여 창업투자시장을 잘 바라보고, 프로젝트의 상업가치를 중시할 것이다.

4. 양자컴퓨터 시리즈 27) 양자 컴퓨팅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는 암호 알고리즘 개발 - 신량과기 제공



사진 1) 출처: 신량과기, 난징 항공우주과학대학의 컴퓨터과학과 기술학원 교수이자 박사지도 교수인 류저(刘哲)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암호화 알고리즘, 특히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은 양자 컴퓨터가 출현한 후 깨질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양자 컴퓨터가 등장한 후에도 여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양자 컴퓨팅 위협에도 두려울 필요가 없는, 새로운 암호화 알고리즘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후 양자 암호화’에 대해 말하면, 난징 항공 우주 과학 대학의 컴퓨터 과학과 기술 학원 교수이자 박사지도 교수인 류저(刘哲)의 말하는 속도는 매우 빨랐다.

0에서 1까지, 두 개의 극히 단순한 숫자, 그들로 구성된 암호 세계, 지금 거의 류저 인생의 전부이다.

최근 몇 년 동안 Liu Zhe는 처음으로 양자 공격에 저항할 수 있는 격자 암호화 알고리즘을 매입식 칩에 적용하고, 사이드 정보 채널 공격에 저항하는 경량급 전략을 제안하여, 중국을 위해 차세대에 적합한 사물 인터넷의 암호화 알고리즘을 설계하여 실행 근거를 제공했다.

얼마전, 알리바바 달마학원에서는 두 번째 청오렌지상 명단을 발표했다. 류저는 암호 알고리즘과 시스템 영역에서 획득한 성과로 상을 획득했다.

처음에는 부팅시키는 것도 전전긍긍했다

2004년 9월, 류저는 산둥 대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했다. 시골 어린이들에게는 컴퓨터가 드물어, 류저는 몇 번 본 적이 없지만 강력한 호기심때문에, 그는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공학 전공을 선택했다.

컴퓨터라는 이 새로운 사물에, 류저는 처음에는 약간 겁을 내기도 했다. ‘막 시작할때는 컴퓨터를 켜는 것도 전전긍긍하였다.’

2004년은 중국의 암호화 영역에서 특별한 해였다. 올해 산둥 대학교 교수이자 중국 과학원의 아카데미회원인 왕샤오원(王小云)은 암호문을 심은 국제적으로 유명한 암호 알고리즘 MD5를 해독했다. 이것은 18세의 류저의 마음속에 암호학의 씨앗을 품게했다.

‘이 연구 결과는 전체 암호학계를 들썩이게 했다. 암호학은 최초로 나의 시야에 진정으로 들어왔다. 마치 ‘수수께끼를 설정하고’ ‘수수께끼를 추측’하는 것과 같고 그 즐거움이 무궁했다.’ 류저는 이로부터 암호 세계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암호에 대한 지식을 보충하기 시작하고, 어려운 공식을 배우고, 4년 후 대학원에 있을 때 암호의 방향을 선택한 다음 룩셈부르크 대학교 (University of Luxembourg)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최근 사물 인터넷 기술이 등장하면서, 사물 인터넷 보안은 사이버 공간 보안 영역의 인기 연구 분야가 되었다.

IoT 칩의 안전성을 어떻게 향상시킬까? 2014년에 류저는 IoT 칩에 적합한 경량급 MoTE 타원 곡선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이 곡선의 암호창고를 기반으로 설계, 구현, 개발했다.

MoTE 곡선 알고리즘은 여러 측면에서 IoT 칩에 적용하는 기존 타원 곡선 알고리즘보다 우수하다. ‘MoTE 타원곡선은 제한된 자원으로 IoT 칩에서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IoT 장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IoT에 적합한 암호 알고리즘 설계를 위한 실천 기반을 제공한다.’

양자 시대의 암호를 위한 해자를 건설한다

양자 컴퓨터가 언제 나타날지, 학계에서는 정확한 예측이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양자 컴퓨팅이 네트워크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여긴다. 류저의 또다른 연구 방향은 양자

시대에 사용할 수 있는 암호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것인데, 이러한 암호 알고리즘을 포스트 양자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한다.

‘포스트 양자 암호에 대해 접착하기 시작했을 때, 특히 내장형 설비, 예를 들면 무선 센서 포인트, 스마트 카드, 휴대폰 등과 같은 설비에서 관련 알고리즘을 실현하기가 비교적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다. 어려움은 내장형 장치 프로세서의 컴퓨팅 성능이 비교적 뒤떨어진다는데 있다. 메모리는 상대적으로 작고 양자 암호 알고리즘은 더 큰 메모리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나중에 류저는 많은 문헌을 읽은 후, 프로세서의 구조적 특성을 사용하고, 알고리즘을 재구성하여 새로운 운영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메모리와 프로세서 간의 데이터 교환 횟수를 줄이고, 작동 속도를 높이고 메모리 사용량을 줄였다. 그리고 최초로 매입식 칩 상에 양자 공격에 저항할 수 있는 격자 암호를 효율적으로 실현했다. 이 논문은 암호화 엔지니어링영역에 관한 최고 컨퍼런스—암호 하드웨어와 매입식 시스템 국제 컨퍼런스 (CHES)에서 발표되었다.

류저는 이 연구 성과가 이미 EU Horizon 2020 프로젝트의 연례 보고에 포함되었으며, 많은 국제 암호 학자들의 인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귀국 후 류저는 중국과학원 정보 엔지니어링 연구소(中国科学院信息工程研究所)의 정보 안전 국가중점실험실(信息安全国家重点实验室)의 연구원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매입식 칩에 중국 독립적으로 설계한 격자 암호 알고리즘 LAC 를 구현하고, LAC 암호 알고리즘에 참여하여 국제 암호화 표준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일찍이 자신의 과학적 연구 능력에 의구심

류저의 과학 연구의 길은 순탄하지 않았다. 그는 첫 번째 학술 논문이 세 번 거부되었다으며 발표하는데 1 년이나 걸렸으며 ‘박사를 완수하는데 적합한지 그 당시 자신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라고 고백했다.

당시 류저의 지도교수, 룩셈부르크 대학의 교수인 Keen Sebastian Cologne 은 지도하면서, 논문이 잠시 승인되지 않은 것이 이 연구 작업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에게 납득시켰다.

그 이후로 류저는 여전히 하루 12 시간, 일주일에 6 일의 작업 리듬을 유지하며 종종 한밤중에 논문을 쓰기 위해 깨어났다. 노력은 늘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다. 최후로 그가 졸업할 때 룩셈부르크 국립 자연 과학 재단 (Luxembourg National Natural Science Foundation)에서 그 해에 유일하게 걸출한 박사 졸업논문상을 받았으며 이 상을 수상한 최초의 중국인이 되었다.

양자 컴퓨터 시대의 도전과 모든 IoT 인터넷 시대의 요구에 대응하여, 류저는 자신이 보안성이 좋고, 고성능에 코드량이 작은 포스트 양자 암호 알고리즘을 설계하여, 중국의 포스트양자 암호 알고리즘 표준 제정을 촉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최근 몇 년간 류저는 난징 항공 우주 과학 대학의 사이버 공간 보안팀을 이끌고 암호 공학, IoT 보안, 블록 체인 기술, 인공 지능 보안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결과를 얻었다. 국제안전회의에서 3 차례 최우수 논문상을 획득했다. 그는 향후 자신의 연구 성과를 국가 전력망, 산업 제어 네트워크 및 기타 분야에 적용하기를 희망한다.



ICO News Letter by PLAYCOIN

1. 게임허브 코리아, 음원 저작권 플랫폼 오즈와 MOA 체결 '음원 저작권 CMS' 본격화 (etnews, 2019.12.18)

블록체인 전문기업 게임허브 코리아(대표 김호광)는 음원 저작권 플랫폼 기업인 오즈(대표 최홍준)와 음원 저작권 CMS 사업을 전략적으로 제휴하기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고 12월 18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게임허브 코리아는 블록체인 활용을 위한 기술 개발과 음원 저작권 단속과 유통 관리 분야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기술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게임허브 코리아와 MOA를 체결한 오즈는 블록체인 기반의 음원 유통 B2B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명성황후 OST 등으로 유명 작곡가인 이경섭 프로듀서가 음원 제작과 음원 비즈니스를 총괄하고 있다.

오즈는 2020년 1분기까지 5만곡 이상의 저작권 단속 권한을 확보할 예정이다. 게임허브 코리아는 음원 저작권 B2B 전문 기업인 오즈와 음원 저작권 CMS 사업을 안착할 수 있도록 그동안 축적한 블록체인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컨설팅과 기술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게임허브 코리아는 B2B 제휴사를 통해 음원 유통과 유튜브등의 MCN 채널에서 불법 유통되는 음원의 수익화 사업을 2020년 1분기부터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게임허브 코리아 김호광 대표는 '음악 저작권 플랫폼 오즈와 제휴를 시작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를 확보할 것'이라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 암호화폐 전자지갑 PlayWallet 삼성 갤럭시 스토어 런칭 (플레이코인, 2019.12.18)

블록체인 전문기업 게임허브코리아(대표 김호광)가 자체 개발한 암호화폐 전자지갑 '플레이월렛(PlayWallet)'이 2019년 12월 18일 PlayWallet이 삼성 갤럭시 스토어에 런칭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런칭이 되었으며 삼성 갤럭시 폰에서 더 많은 고객을 만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플레이월렛은 보안전문가들이 만든 안전하고 편리한 암호화폐 지갑이며 다양한 암호화폐(BTC, ETH, PLY, QTM)를 지원하고 있고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보안기술 및 편리한 클라우드 백업 등 장점으로 수많은 유저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삼성 Blockchain 관련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갤럭시 스토어에서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및 리뷰 부탁드립니다.

Link: <https://galaxy.store/playw>

감사합니다

3. 중국 2020년 블록체인 세계 리더 위상 강화 전망 (블록미디어, 2019.12.16)

전 세계 블록체인 산업의 선도 국가로 자리 잡고 있는 중국이 2020년에 보다 폭넓은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전망이라고 16일(현지시간) 코인스피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얼마 전 시진핑 국가주석의 블록체인 기술 혁신을 강조하는 발언 이후 중국 사이버관리국에는 기술 대기업 화웨이, 텐센트 등을 포함해 500 개 이상의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새로 등록되는 등 업계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세계 다른 국가들에서도 블록체인 사업이 최근 증가하고 있지만 중국처럼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곳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페이스북이 추진하고 있는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는 정부와 정치권 등으로부터 상당한 역풍을 맞고 있다.

또한 중국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을 통해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 발행 준비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 은행은 이미 몇몇 통신 대기업들과 본격적인 시험에 돌입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코인스피커는 중국이 이처럼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이 높은 것이 다른 국가들의 블록체인 관련 산업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세계 블록체인 산업에서 중국의 일방적인 우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블록체인 밸리 벤처스의 파트너 세바스티안 마르코프스키는 중국이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방식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독주체제는 장기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4. 중국 블록체인 시장 '거래소 합법화 가능성 있다' (beinews, 2019.12.17)

중국 정부에서 암호화폐 상장을 금지하고 있지만, 세계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완전히 막지는 못할 것이다. 중국 정부에서 법을 세워 준수하게 하고, 그 기초에 따라 거래소 허가를 주고 합법화해 관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단, 지금 상태에서는 명확하지 않다.

중국에서 블록체인은 권장하지만 암호화폐는 규제하는 기초를 가지는 가운데, 양 링크(Yang Linke) BTC 차이나 창립자가 예측한 중국 블록체인 시장 전망이다.

현재 중국 블록체인 시장은 농업, 민생 관계와 관련된 블록체인은 환영하지만, 불법적으로 암호화폐를 활용해 이득을 취하는 활동은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에서 암호화폐 발행을 발표해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양 링크 창립자는 '암호화폐 발행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언제 출시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때 다른 국가에서 먼저 정부가 주도하는 암호화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 작은 나라에서는 국가 차원의 암호화폐를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암호화폐의 본격화를 언급했다.

이와 같은 국가 차원의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적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제작될 것이라 전망이 있다. 이외에도 전 세계 20 억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페이스북의 리브라 역시 스테이블 코인으로 개발예정이다. 그 때문에 국가 차원의 암호화폐와 글로벌 지역에서 쓰이는 암호화폐 간의 영향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양 링크 창립자는 '중국을 예로 들면 중국에는 14 억 명의 인구가 존재한다. 글로벌 적으로 보면 페이스북이 유리할 수 있지만 법으로 지정된 암호화폐라는 점에서 볼 때 국가 차원의 암호화폐가 더 유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 블록체인 시장과 관련해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합법화가 진행된다면 큰 가능성을 가지는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양 링크 창립자는 '시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앞으로의 블록체인 시장을 전망할 수 있기 때문에 2020 년을 전망하기란 어렵다. 하지만 중국의 블록체인 발전과 한국을 비교해보면 3 개월에서 6 개월 차이로 비슷한 이슈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했다. 한국의 블록체인 시장을 전망하고 싶다면 중국을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능성을 바탕으로 ZG.com 은 글로벌 블록체인 리더스 서밋을 개최해 블록체인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교류했다. 자오 창위 ZG.com 대표 역시 한국 프로젝트와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자오 창위 대표는 '주로 상장을 통해 프로젝트와 협력하는 편이지만 한국 프로젝트를 상장하면 유저의 사용이나 거래량을 자극하는 것에 더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때문에 글로벌 블록체인 리더스 서밋과 같은 행사를 마련한 것이다'고 밝혔다.

또 '한국을 방문하면 한국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일본, 북미, 남미,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의 프로젝트를 만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네트워킹하기 좋은 곳이라 생각한다.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해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다'라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5. '중국 정부발 거울을 준비하라' (coindesk, 2019.12.19)

'내년에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중국 정부는 그렇게 쉽게 디지털화폐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계속해서 추운 거울을 대비해야 한다.'

후오비 그룹 CSO(최고전략책임자) 출신인 차이카이룽(Cai Kailong) 인민대학 핀테크연구소 총괄은 지난 16 일 서울 강남구 프리마호텔에서 열린 '아시아 디지털 자산 거래소 2020 년 전략 VIP 세미나'에 중국의 규제에 대해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0 월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발전의 혁신 추진'을 언급하자, 7500 달러 수준이었던 비트코인 가격은 하루만에 1 만달러까지 올랐다. 그러나 차이카이룽 총괄은 '중국 정부가 진흥하려는 건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의료, 지식재산권, 교육, IoT 등 실물경제와 블록체인의 접목'이라고 말했다.

실제 중국 정부의 규제는 곧 구체화됐다. 차이카이룽은 중국 언론 등을 인용하며 중국 정부가 2019 년에 폐업시킨 암호화폐 거래소가 6 개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외국에 서버를 둔 채 중국인들에게 서비스한 200 개 이상의 기업이 올해 차단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1 만개 이상 전자 결제 계정이 동결됐고, 300 개 이상 위챗 계정이 정지됐다'며 '중국 정부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엄격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거래소를 만나보면 아직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한다. 대형 거래소는 특히 하이난에서 정부에 로비 중이지만 결과는 불확실하다. 바이낸스는 아무래도 규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정부와 친하게 지내지 못하는 듯하다. 더 심각한 상황인 중소거래소들은 활발한 활동을 삼가면서 조용히 지내고 있다.'

다만 차이카이룽 총괄은 정부의 정책 변화로 채굴 산업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시 주석 발언 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암호화폐 채굴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했다. 그는 '정부 규제가 풀렸다고 볼 수 있어 채굴 기업은 발전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또한 그는 세계 2 위 채굴기 제조사인 카난크리에이티브(嘉楠科技, Canaan Creative)가 지난 11 월 미국 뉴욕 나스닥에 상장된 것을 언급하며 '카난 상장을 기준으로 채굴 기업의 가치를 매길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 인민은행이 2014 년부터 연구 중인 디지털통화·전자지불(DC/EP)에 대해선 기대 수준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DC/EP 는 한마디로 '위안화의 디지털화'다. '위안화의 국제화'와 같은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지금의 결제 시스템과 병렬되고,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한만큼 변화가 오는 건 아니다.'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디자인 (107)

본 자료는 아시아디자인연구원(ADI) 원장이며, 상하이교통대학 디자인 학원 산업디자인학과 윤형건 교수의 글입니다. 본 자료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윤형건 교수(yoon_bam@126.com)께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특별 기고문 – 한 해를 마무리 지우면서

나라의 문화 수준은 디자인 수준

디자인 수준은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의 척도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필자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선진국이라고 일컫는 G7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태리, 캐나다는 하나같이 디자인 선진국이다. 그런데 G2 인 중국은 어느 누구도 중국을 디자인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는다. 중국인 자신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세계인이 인정하는 디자인은 '완성도 높은 디자인으로 세계 공용성과 자국다움이 있냐?'에 있다.

미국의 애니메이션을 보면 사실보다 더 사실처럼 디자인하여 실로 감탄이 나오고, 독일의 자동차는 성능도 좋지만 디자인에서 고객을 마음을 빼앗기 충분하다. 프랑스와 이태리의 디자인 역시 세계의 멋쟁이들이 돈을 드려서도 꼭 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디자인은 배려와 공익성을 강조하여 디자인에서 민주와 민중이 중심에 있다. 친환경 제품에 깊이가 있는 캐나다 디자인은 남과 자연을 배려하는 선진적 사상에 바탕을 두고 디자인하고 있다. 역시 남하고 다른 자기만의 디자인 색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

선진국여서 디자인이 좋고, 디자인이 좋아서 선진국인가 보다. G7 은 아니지만, 북유럽의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 스웨덴의 디자인도 좋다. 자기만의 확실한 디자인 색이 있다.

한국은 어떠한가? 상기의 나라의 모든 장점을 배워 잘 하지만, 그렇다고 미국 이상의 애니메이션을 하지 못하고, 이태리, 영국, 프랑스 같은 명 브랜드는 없고, 일본, 캐나다, 북유럽같이 친환경적으로 인간과 환경을 배려하는 하지만 그렇다고 일본, 캐나다, 북유럽 까지는 아니다. 뭔가 부족하다. 흔히 중국 디자인을 보고 뭔가 부족하다고 하듯, 한국 디자인도 선진국에서 보면 뭔가 부족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왜 부족한가? 디자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철학이 깊지 않아서라고 생각한다. 이해와 철학이 깊지 않으면 남들의 논리에 휘둘리게 된다. 좋은 디자인을 보고 나의 것을 만들지 못하고 모방을 하게 된다. 나의 것이 되려면 깊은 성찰과 수많은 과정이 필요하다. 아직 그런 내공이 없다.

사회 문화 수준이 올라가야 하는데 아직은 그만큼은 아니다. 의식 및 경제와 디자인하고 선순환 되어야 한다. 단순한 기술과 자본으로 되는 문제는 아니다. 디자인을 사용하는 대중의 의식과 안목의 향상 없이는 디자인의 발전은 제약을 받는다. 디자인은 개인을 풍요하게 하면서, 사회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한다.

디자인을 한 회사가 만든 제품으로 시장에서 많이 팔리게 하는 기능으로 보면 협소하다. 디자인은 한 사회의 성숙한 문화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이다. 그래서 디자인은 각국마다 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가 지원 및 정책이 있다.

이러한 지원과 정책은 대중과 회사가 함께 어울릴 때 효과를 발휘한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중국 디자인은 국가의 주도에 모든 산학연이 어울려 하나가 되어 협주곡을 부르듯 진행한다.

디자인이 2 류면, 결코 1 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중국은 이제는 알고 있다.

중국 디자인 발전에 공헌하면서 그들의 발전에 웬지 겁이 난다. 중국이 디자인에서 일류가 되면 또 하나의 막강한 힘으로 페어하기 보다는 힘을 사용하게 자기에게 유리하게만 할 것 같기 때문이다.

일본 전문가 시각으로 본 중국

1. 2020 년 투자대상으로서의 일본 (IT media, 2019.12.20)



표 1) 출처: 닛코어셋먼트, 닛케이평균주가와 미달러(대엔)의 추이(2019 년 1 월초~2019 년 12 월 18 일) 상기는 과거의 것이며, 장래의 운용성과등을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닛케이평균주가와 미달러(대엔)의 추이

2019 년의 세계와 일본의 시장은 2018 년 말에 있었던 경기 침체 우려 불식으로 시작되어 대체로 순조로웠다. 닛케이 평균 주가는 2 만엔 정도로부터 시작되고 집필 시점에서는 2 만 3 천엔 대를 맴돌고 있다. 5 월과 8 월은 각각 미중 무역 협상의 진전 정도가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쳐, 일시적으로 경기후퇴를 우려하는 국면이 있었지만 실물 경제는 그만큼 악화되지 않고 세계 경제는 감속하면서도 건전한 성장을 계속해 연말을 앞두고 일본 경제에 대한 신뢰감도 회복하고 있다.

일본의 정책금리와 국채이율의 추이

2019 년을 돌아볼 포인트는 우려와 현실의 차이다. 몇 번이나 '우려'에 시달렸지만, 현실적으로는 무역마찰(관세 인상 포함)이 그만큼 세계 경제성장에 중대한 '결과'를 주었다고는 할 수 없다. 5 월과 8 월 '경기침체우려'은 결과적으로 경기 후퇴가 일어나지 않음으로 12 월까지 대체로 불식되고 주가 지수는 회복에 이르고 있다.

세계 경기의 감속은, 원래 미국 소비를 중심으로 한 수요의 보합세(성장율의 감속)에 시작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고용이 순조롭게 증가해 임금상승률도 리먼 쇼크전의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어 소매매출액에 보는 수요의 회복도 확실해졌다.

감속의 이유를 모두 무역마찰로 간주하면 사고정지의 위험이 있다. 제조업의 추가적인 투자 의욕을 일시적으로 잃게 한 면은 부인할 수 없다고 해도 2019 년의 트럼프 정권의 대중 추가 관세는 미국의 안정된 내수를 흔들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2018 년부터 중국 수요의 침체도 무역 마찰만으로 설명하기에 불충분하고, 중국 자신의 정책인 델리버릿지의 영향이 크며, 이미 중국 정부가 그 영향을 조금씩 제거하고 있다.

2020 년의 예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

일본 국내의 마켓 환경은, 무역 마찰에 관련되는 정치 사이클에 시달리다 심리적으로 상하 움직인 것에 가세해 소비세 증세의 영향을 판별하고 싶다, 라는 투자 스탠스에도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소비세 증세의 조기 수요는 전회의 증세시에 비해 크다고는 할 수 없고, 반동감소도 작을 것이다. 실질 수출은 최근 답보라고는 하지만 2016 년경에 비하면 10%정도 비싸고 리먼 쇼크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추이하고 있으며 세계 수요의 확대를 배경으로 한 고용과 설비 투자 확대 증가의 정도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만일 소비세 증세의 영향이 미미하다고 해도 그것이 시장에 충분히 알려지게 되려면 경제 통계나 2019 년도의 기업 실적 발표를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0 년을 한마디로 세계적으로 저렴하면서도 안정 성장이 기대 될 한해가 될 것이다. 주식의 완만한 상승과 채권이나 REIT 의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기대하고 있다. 선진국보다 신흥국이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일본도 디플레이션에서 본격적으로 벗어나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올림픽이 개최되는 해에는 개최되기까지의 투자 효과가 한바퀴 돌아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개최국 정부는 재정 정책으로 커버하려고 하지만 그 이상으로 세계 전체의 수요 확대가 계속되는 것이 일본에 있어 중요하다. 국내의 수요세보다는 리먼 쇼크로부터의 회복이라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트렌드에 계속 주목하고 있다. 수출의 신장이 높아져 국내경제로 파급되면 인바운드를 포함한 올림픽 수요의 침체가 있었다고 해도 커버하고 남은 성장을 누릴 수 있다고 상정하고 있다.

주요투자대상 (주식, 채권, J-REIT 등) 의 투자요미에 대해서

일본주(기업)에 대해서는 2019 년부터 2020 년에 걸쳐 저성장면서 플러스의 이익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데, PER 이 보합이라도 주주 환원을 포함해 적절한 리턴을 낳는다고 생각하고 있다(2020 년 12 월의 닛케이 평균 주가 예상 2 만 6500 엔). 2020 년 중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간다고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2020 년 가을경까지 장기 금리(동 10 년 국채 이율 예상)은 0%정도로 회복해 이자율 상승으로 채권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채권 리턴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다만, 만일 소비세 증세의 영향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작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일본의 인플레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아직 메인 시나리오라고 부르기에는 불안하지만 실질 수출의 수준이 리먼 쇼크 전으로 돌아가 이대로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수출 관련 기업은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 투자나 고용, 잔업 등을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국내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면, 돈 여분의 탈피, 인플레 기대감이 증대된다. 해외 투자자의 일본에 대한 인플레 기대가 아베노믹스 개시 이래로 고조되면 일본주는 큰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목하고 있다. 다만 이런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2020 년의 말에 오를 전망이다.

J-REIT(부동산 투자 신탁)에 대해서는 2020 년의 금리 상승 폭이 한정적으로 보고 있으므로, 분배금의 높이에서 매력을 유지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는, J-REIT 를 가격 상승 추구의 상품으로서 보다는, 주식보다 높은 배당금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 보유를 검토해 주었으면 한다. 부동산 주식을

산다면, 그 회사는 임대 수입을 내부 유보하고, 다른 물건을 사서 성장을 목표로 할 것이다. 만일 같은 집세 수입을 얻는 J-REIT 라면 수익의 대부분을 분배하고, 그 안정을 목표로 할 것이다. REIT 와 주식의 차이를 적절히 이해한 후에, 투자 목적에 따른 보유를 유의하기 바란다.

2.미중무역협약, 영국총선거, FOMC... 이어지는 이벤트는 외환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머니포스트 WEB, 2019.12.20)



사진 1) 출처: Getty Images. 영하원 총선거에서는, 보리스존슨씨가 이끄는 보수당이 대승

12 월 중순에는 미중 무역 협의' 제 1 단계'합의, 영국 총선, 연방 공개 시장 위원회(FOMC)와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정치 행사가 이어졌지만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각 이벤트의 마켓으로의 영향에 대해서, FX(외환 증거금 거래)등의 카리스마 주부 트레이더로서 알려진 이케베 유키코씨가 해설한다.

12 월 15 일 미중 무역 회담이 제 1 단계의 합의로 마련됐고 미국이 중국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 중 1200 억달러 상당의 '15%관세율'부분에서는 세율을 반감시키고 2500 억달러 정도의 '25%관세율'부분에서는 현상 유지 방침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은 미국 농산품의 수입을 연간 500 억달러 규모로 치를 예정이며 이는 중국 국내에서 만연하는 돼지 콜레라의 문제나 경제 상황도 고려한 것입니다.

미중의 무역협상은 진전을 보였지만, 일본주나 달러엔의 가격형성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가격은 왕래하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결과를 미리 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움직임이 적었던 것은 12 월 들어 시장 참가자가 줄었던 것도 관계 있을지도 모릅니다.

12 일 실시된 영국 하원의 총선에서는 보리스 존슨이 이끄는 보수당이 대승. 눈앞의 합의 없는 EU(유럽 연합)이탈이 후퇴됨으로, 파운드화 엔화는 약 4 엔도 급등했습니다. 올해 파운드 엔화는 최저치로 최고치의 차이가 약 22 엔이나 있어(달러엔은 8 엔 정도), '살인 통화 파운드'의 이명으로 크게 움직였습니다.

다만, 영국에 관해 조금 신경 쓰이는 것이 스코틀랜드 독립 문제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2014 년에 독립 국민 투표가 이뤄지고 그 때는 부결이란 결과에 끝났지만 최근 영국 총선 후 스코틀랜드 국민당의 당수 두 콜라 스타 존 씨가 독립 여부를 묻는 국민 투표 실시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의 의석 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향후 스코틀랜드 독립 문제가 다시 화제에 오를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10-11 일에 개최된 FOMC 입니다만, 미국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FRB)의 파월 의장은 필요에 따라서 금리부 채권 구입 가능성에 들어가기로 언급. 완화책의 여지를 남기는 메시지를 발신하면서도 당장의 금리 인하는 일단 정지 멈춘다고 해서 시장의 예상대로 결과가 되어, 달러엔은 몸 싸움으로 추이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펀더멘털즈의 재료만을 의지해 트레이드 하는 것이 아니라, 차트 분석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유의하고 있습니다. 실제, 큰 경제·정치 이벤트 전에 차트상에 매매 사인이 나타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트레이드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가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별해, 자신의 트레이드에 어떻게 활용할지가 요구됩니다. 투자 초보자는 그런 시각과 함께 매일매일의 뉴스를 체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PROFILE】이케베유키코 池辺雪子 : 도쿄도 거주 주부. 젊었을 때부터 주식이나 상품 선물 투자를 배우고 2000 년부터 FX 투자를 시작, 지금까지 8 억엔 이상의 이익을 내는 민완 트레이더. 2007 년 봄, 탈세 혐의로 기소, 그 해 여름, 집행 유예형이 확정. 그 뒤 소득세, 연체세 증가산세 주민세, 벌금(약 5 억엔)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다. 2010 년 9 월에 집행 유예가 만료. 현재는 스스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 납세에 관한 세미나, 집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터키릴라/엔, 달러/엔, 다른 통화, 닷케이 평균주가 등의 가격변동에 관한 상세한 분석을 전개하는 '이케베 유키코 공식 메일매거진'도 발신 중. (<http://yukikov.jp/>)

3. 2020 년, 드디어 아베노믹스의 '최종결론'이 밝혀진다 (겐다이비즈니스, 2019.12.19)



사진 1) 출처: 겐다이비즈니스

세계경제는 '정체국면'에 있다

지금까지 본 칼럼에서는 개별적인 화제에 포커스하여 코멘트를 해 왔지만, 전체감을 나타내는 '빅픽처'를 명확히 제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연말의 이 자리를 빌려 제시해 보고 싶다(이런 종류의 '빅픽처'에 대한 질문을 받는 일이 많아진 것도 있으므로).

5 년후, 10 년후에 '살아 남는 회사 / 없어져 있는 회사'를 실명공개 !

결론을 먼저 말하면 지금까지의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는 일본 경제의 흐름을 디플레이션 스파이럴에서 아직 충분하지 않지만 디플레이션 탈출의 방향성으로 바꿨다는 점에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아직 점수를 매겨 총괄을 할 단계가 아니라 최종적인 아베노믹스 평가는 내년 동향 여하에 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서 우선 현재의 세계 경제에 대한 시각에 언급하고 싶다.

IMF 가 발표한 세계의 실질 GDP 성장률을 보면, 2018 년 1-3 월기의 전년 대비+4.2%를 정점으로 둔화되면서 최근 시점에서 3.1%까지 둔화되고 있다(2019 년 전망은 동+3.0%).

이 성장률을 과거와 비교하면 1990 년대 초반 2000 년 초반과 거의 같다. 이들 시기는 모두 큰 거품붕괴(일미유럽에서의 부동산 거품붕괴 및 IT 버블) 후의 조정국면에 해당된다. 이번에는 2008 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라고 하더라도, 리먼 쇼크로부터 이미 10 년의 세월이 경과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버블 붕괴 후의 조정 국면인지 아닌지는 미묘하지만 어쨌든 '정체 국면'에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세계의 무역 수량의 감속도 이 IMF 의 세계 실질 GDP 성장률의 움직임과 정합적이다.



사진 2) 출처: gettyimages

미영의 경기는 견조로 추이한다

주요국을 보면 미국은 실질 성장률에서 2%정도의 '저변안정'을 끈질기게 유지하고 있다. 최근의 주택투자 회복이나 자동차 판매 대수 및 신규 대출 계약액 저점을 생각하면, 향후도 견고하게 추이하는 것은 아닐까.

한편, 중국이지만, 얼마전의 미중 무역 교섭의 일단의 결착으로 한숨 돌린 모습이다. 그러나 중국은 일본이라고 하면, 1980년대 경험한 것 같은 안정 성장으로의 이행기이며, 성장률의 극적인 상승은 생각하기 어려우며, 둔화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내년에는 5% 후반 정도의 성장에 둔화될 것. 또, 중국 당국이 '통증'을 각오하고 장래를 위해서 구조개혁에 우선적으로 임한다면, 한층 더 성장률이 감속할지도 모른다.

필자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곳이 유럽이다. 특히 유로권을 주도하는 독일의 경제 악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그 독일이지만, 특히 설비 투자의 악화가 현저하다. 이것은, 유럽에 있어서의 지나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의 영향으로 자동차의 판매 대수가 크게 침체한 것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독일의 설비투자 악화는 지금까지 호조였던 동유럽 여러 나라의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독일은 EV(전기자동차)로의 전환을 도모하려고 필사적이지만, 원래 일렉트로닉스 산업에 경쟁 우위성을 가지지 않는 독일이 단기간에 EV 분야에서 경쟁력을 획득한다고 보기 어렵다(이것은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 다른 유로권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이상으로 유로권은 일종의 구조조정기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유로권 국가의 경기 침체는 계속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한다.

덧붙여서 독일의 경기악화의 이유에 대해 자주 지적되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의 높이'이지만, 중국용 수출은 그다지 크게 줄지는 않았다. 올해는 9월까지 누계 기준으로 전년 대비+2.7%로 증가 기조로 추이하고 있다(유로권 전체도 마찬가지). 또 수출 시장 점유율 7%정도이다. 참고로 일본은 10 월까지의 누계로 전년 대비 ▲ 8.8%, 수출 시장 점유율 18.7%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Brexit(EU 이탈)'은 영국에 있어서는 오히려 호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영국 경제의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영국 경제 악화의 주된 요인은 설비 투자의 침체이다(고용은 의외로 견조하다).

이 설비투자의 침체는 영국이 제조업 거점을 잃어가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Brexit의 장래 불투명감에 의한 '상황보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따라서, Brexit이 거의 결정적으로 된 지금, 설비투자는 회복되어 오는 것이 아닐까. 아울러, 보수당의 존슨 정권은 감세 등의 재정 확대를 구상중이다. 재정 확대는 영국 경제에 플러스다.

또 대혼란의 우려가 강한 Brexit이지만 많은 부분에서 경과조치가 설정되어 있어 수속에 관련된 혼란으로 경제활동이 마비될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런류의 절차는 '결정사항'으로,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제대로 정하지 않으면 영국뿐만 아니라 대륙 유럽도 큰 타격을 입는다. EU 정상도 '괴롭히기'를 할 여유는 없는 것 아닐까?

이상부터, 세계경기는 전체적으로 당분간 현 상태의 '정체'를 계속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미국, 영국의 '7개국로색슨계'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견고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내년은 소비가 침체, 악화한다

다음으로 일본 경제에 대한 시각이다.

세계 경제 둔화를 배경으로 수출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경기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일본의 우위 산업인 전기, 기계, 자동차 등은 중국 경제에 의존하는 바가 특히 크기 때문에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급회복을 바랄 수 없을지도 모른다.

단지, 현재, 외수의 가속도적인 악화는 멈추어 있고, '서프라이즈'의 방향성은 플러스에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올해는 9 월경에 반도체 시장의 예상 밖의 개선이 있었지만 내년은 다른 업종(예를 들면, 기계)에서 같은 사태가 일어나면 경제에 밝기가 더할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싶은 바이다.

이처럼 부진의 외수 대신 2018 년 10-12 월기 이후의 일본 경제를 이끌어 온 것은 내수이다. 특히 개인소비와 주택투자가 의외로 견조했다. 개인 소비에 대해서는 2014 년 4 월 소비 증세 이후 오랫동안 침체했으나 지난해 말보다 회복 과정에 들어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올해 10 월보다 소비율이 8%에서 10%로 늘었다. 이번에도 직전에 '갑작스런 수요'의 확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반동 감소에서 10 월의 소비는 크게 떨어졌다.

하지만, 이번 소비 증세의 영향이 분명히 나오는 것은 내년이며, 이 단계에서 소비 증세의 악영향이 어느 정도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이르다. 단, 전회의 소비 증세 때와 크게 다른 점은 기업에 의한 소비 증세분의 판매가격에 대한 전가 정도가 상당히 낮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환원 포인트나 경감 세율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가격전가도가 저하된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가미해도, 소비 증세에 의해서 보여지는 판매가격 인상이 지극히 작은 것이 이번 특징이다.

이것은 기업간에 가격 경쟁이 벌써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특히 본래는 환원 포인트가 적용되지 않는 업태가 적용되는 업태와의 경쟁상, 가격을 동결하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로 인해 향후 국내의 소비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수익 환경의 악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시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즉, 이번에는 소비자에 대한 영향이 가격 상승에 의한 실질 가처분 소득의 저하에 의해서 초래된다고 보다는 기업 수익의 악화에 따른 소득 환경의 악화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소비가 악화되어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것은 바로 재 디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 한편, 7-9 월기까지 설비 투자는 안정적으로 추이하고 있다. 특히 소매업이나 소비관련 서비스업의 설비투자가 견고하다. 이는 향후 국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노동대체·노동절약적인 설비투자에 의한 생력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여기에서 '일하는법 개혁'의 법제화·엄격적용화에 의한 산업 감소도 겹치므로, 내년에는 소비의 침체·악화가 염려된다.

또 7-9 월기까지는 초저금리에 의해서 성황이던 주택 투자에도 그림자가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내년에는 '국내민수'의 감속이 우려된다.

‘리플레이션레짐’의 훼손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지금까지 이상으로 '경제정책'이 중요시된다.

지난주 우리 칼럼에서도 언급했지만 '아베노믹스'의 많은 시기는 '금융정책의 대폭 완화+재정정책의 긴축'이라는 조합이었다.

일본 은행은 2013 년 이후, 대담한 '양적 질적 금융 완화'를 실시했다. 특히 2014 년 4 월 소비 증세까지 양적 완화 정책은 1 년간 1.5%포인트 미만 정도의 인플레이션 상승을 가져왔다.

이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스탠스는 아베 정권의 '디플레이션 탈출 최우선'이라는 정책 목표에 대한 강한 커밋먼트를 내외에 어필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이로 인해 사람들의 경제 장래에 대한

시각이 한꺼번에 전환된 점이 컸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는 일본은행의 양적완화 정책은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레짐 전환).

하지만 2014 년 소비 증세는 사후적으로 보면 이'리플레이션 레짐'의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결과가 되었다. 그리고 2015 년 후반부터 중국 경제의 동요(차이나 쇼크)을 계기로 세계 금융 자본 시장은 '리스크 오프'로 강한 엔고 압력이 일본 경제에 부가된다.

그리고, 이때 일본은행은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도입'에 의해 사태 타개를 꾀했다. 하지만, 필자의 인상에서는 마이너스 금리 도입은 '양적완화의 한계'로 해석되어 지금까지의 양적완화의 '레짐'을 거꾸로 훼손시키게 된 것은 아닐까 추측한다. 그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후 외환시장에서는 반대로 더욱 엔고가 진행되게 되었다.

그 후 일본은행은 '일드커브 컨트롤 정책'을 도입해 단기금리뿐만 아니라 장기금리 수준도 조절한다는 새로운 틀을 도입했다. 이것에 의해서, 일본의 금리는 인플레이션을 공제한 실질 베이스에서도 마이너스로 변했다. 이는 금융기관에 있어서는 수익악화 요인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이를 계기로 주택투자나 설비투자가 회복세로 돌아섰다.

즉, '일드커브 컨트롤 정책'은 먼저 도입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잘 보완하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리플레이션 레짐'의 훼손으로 인한 재 디플레이션 위험은 간신히 회피되었다고 생각한다.

'금융완화 + 재정확장'의 조합을

이와 같이, 금융정책에 있어서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계기로 '리플레이션 레짐의 혼란'이 생긴 것, 재정정책은 소비 증세에 의해서 긴축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디플레이션 탈피를 향한 경제의 움직임이 교착 상태가 되었다. 하지만, 그사이, 고용환경은 크게 개선되었다.

실업률 등 고용 관련 통계의 개선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무업자(일할 뜻을 잃은 사람)'가 크게 감소한 점은 아베노믹스의 효과라고 봐도 될 것이다.

이 고용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인구동태의 요인이라고 하지만, 인구동태로 본 기업의 인력부족은 이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기업이 아베노믹스에서 고용 확대를 단번에 가속시킨 것은 아베노믹스에 의해서 기업에 있어서의 장래 환경(사업 환경)이 개선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이 임금의 본격적 상승이나 고용의 안정을 촉매로 하여 가계로까지 확산되면 '디플레이션 탈출'이 되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아직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적어도 기업의 장래 전망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점은 평가해야 한다.

거기에서 향후이지만 소비 증세의 영향에서 소비 환경의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우선은 기업 구조 조정 압력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그리고 다시 위축될지도 모르는 가계 소비를 위한 조치를 재정 주도로 내세울 필요가 있다(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번 소비 증세에서 가장 영향을 받은 40 대, 50 대의 가계를 위한 자산 형성의 지원이나 소득 감세 등의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아베 정권은 경제정책의 책정을 실시하는 것이 종래보다 빨랐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소비증세에 따른 경기악화를 어느 정도는 사전에 염려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다만, 대형이라고는 하지만, 이번 경제대책만으로는 부족할지도 모른다(이번은 사실상, 필요 불가결한 재해대책의 공공투자가 주된 재정지출이었다). 정부는 추가 경제대책 준비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행 금융정책은 국채 증발을 수반하는 재정확장과 조합하면 비교적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국채 증발에 의한 금리 상승 압력을 국채 구입에 의해 억제함으로써 유효한 리플레이션 정책이 가능해진다).

즉,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조합으로 생각하면, '금융완화+재정확장'의 조합으로 바꾸는 것이 디플레이션 탈출의 열쇠라고 생각한다. 치명적인 경기 악화 및 재 디플레이션 압력 증대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경우 금융 정책이지만 필자는 ▲ 0.1~0.2% 정도의 마이너스 금리의 심화로 디플레이션 탈피의 길을 명확히 하기에 불충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만약 다음에 마이너스 금리의 심화를 실시했다고 해도 2016 년 도입 때처럼 반대 효과에는 안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어떤 충격에 의해 엔고 압력이 높아지는 사태에 직면했을 경우에는 나름의 엔고 억제 효과는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는 요즘 학계를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제로금리 해제론'에는 반대이다. 디플레이션 탈출 전에 제로금리 해제를 하면, '일본은행은 디플레이션 탈출 의지를 포기했다'는 견해를 할 가능성이 높아 시장을 포함한 민간 부문의 디플레 예상이 한꺼번에 높아질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금융정책은 최소한 현상유지로 디플레이션 탈출의지는 명확히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ETF 등의 자산구입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마이너스 금리 심화는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지를 포함해, 특히 예측 불가능한 엔고에 대한 대응책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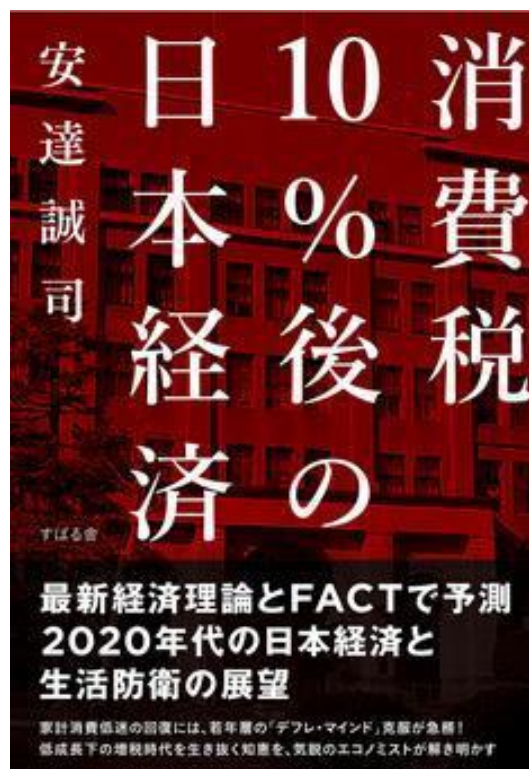


사진 3) 출처: 겐다이비즈니스

재정재건을 위한 필요조건

내년에 중요한 것은 오히려 '재정정책'이다.

완고한 독일이 주도권을 쥔 유럽에서는 아직이지만, 이미 재정이 확장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해 영국도 재정 확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도 법인세의 대형 감세를 내세운 인도나,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 계획이 있는 오스트레일리아등도 재정 확장 정책으로 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나라에서는, 현재의 경기 상황과 관계없이 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확실히 중장기적으로 보면 재정재건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디플레로부터의 탈피가 불충분한 채로는 재정재건도 어렵다.

아베 정권 들어 소비 증세는 2 차례 실시됐지만 반대로 말하면 1 개의 정부에서 2 번의 소비 증세를 실시했다면 앞으로는 당장 증세 혹은 재정 재건은 일단 봉인하고 경제 정책을 디플레 탈출에 집중적으로 배정해야 아닌가.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디플레이션 탈출에 의한 자연증수에 의해서 재정상황은 호전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본격적인 재정재건은 디플레이션 탈출 후의 재정상황을 베이스로 다시 책정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가계에 있어서는 이번 증세에 따른 부담 증가도 물론이거니와 불확실한 경제 상황 그대로 부슬비에 옷 적듯이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에 대한 불안감이 강한 것은 아닐까. 고령화에 의한 사회보장 부담 증가, 젊은층의 소득·저축 상황 등을 감안하면, 재정재건을 위해서는 세의 구성도 포함한 보다 근본적인 세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재정재건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디플레이션의 탈각이 필요조건이다.

내년의 아베노믹스는 그것이 가능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며 디플레이션 탈피를 통한 민생 안정이야말로 헌법 개정의 지지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4.토요타, 키린이 '중도채용자'를 소중히 하는 이유 (겐다이비즈니스, 2019.12.19)



사진 1) 출처: 겐다(현대)이비즈니스

격렬한 글로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의 대기업 메이커가, 지금 속속, 지금까지의 상식을 뒤집는 발본적인 '고용 개혁'에 착수하기 시작한 것을 알고 있을까? 도요타가 중도채용을 늘리고 기린이 외부인재를 발탁하는 등 새로운 인사시책이 속속 나오고 있는 것이다.

옥스포드대학이 인정 앞으로 10 년으로 '사라지는 직업' 없어지는 일'

'일본에 있어서 신규 졸업 일괄 채용의 중요성은 점점 흐릿해지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중도 채용의 비율이 5 할을 넘는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정년 소멸 시대를 어떻게 사는가』의 저자로 경영 고문의 나카와라 케이스케 씨다. 일본형 고용의 대명사인 연공서열이나 '종신고용이 무너지는 전조다--그렇게 말하는 나카하라씨가 도요타, 기린 등의 대기업에서 시작된 고용개혁의 최전선에서 일본에서 앞으로 일어날 고용격변시대의 리얼에 대해 긴급 리포트!



사진 2) 출처: 겐다이비즈니스

토요타가 중도채용을 늘리는 이유

도요타는 기술직이나 사무직 포함 총합직 채용에 있어서 중도 채용 비율을 2019 년도에 2018 년도의 1%에서 3 할로 끌어올리겠다고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5 할을 중도에서 채용할 방침이라는 것입니다. 중도 채용에서는 직무에 있어서의 능력이나 성과에 의해서 평가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서 급여나 대우를 유연하게 재검토하는 구조가 도입됩니다.

토요타가 중도 채용을 늘리는 배경에는, 자동 운전이나 웨어링, 전기 자동차화라고 하는 대응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토요타 본사에 선행하여, 자동 운전 기술의 개발 자회사인 'TRI-AD(토요타·리서치·인스티튜트·어드밴스트·디벨로프먼트)'에서는, 새롭게 채용하는 사원의 반수 이상은 해외에서 오고 있다고 합니다. IT 나 AI, 화상 인식 등 전문성이 높은 인재를 중심으로 채용하려고 한다면,

해외 인재에 의존할 필요성을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혼다나 닛산 등 그 외의 자동차 메이커도 토요타가 내건 새로운 채용의 방침에 추종할 전망에 있습니다.

일본의 대기업이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경영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 대표 격인 도요타가 바뀌면 일본의 대기업 전체가 바뀐다고 말해지고 있듯이, 도요타가 중도 채용을 5 할로 할 방침을 표명한 것은 지금까지의 일본형 일자리가 큰 전환 시기를 맞고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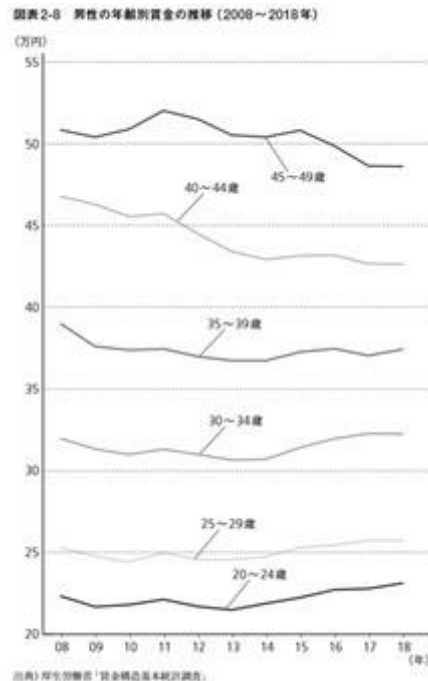


사진 3) 출처: 겐다이비즈니스

40 대에 찾아오는 수난의 시대

이러한 흐름 속에서는, 채용하는 인재에게 장래성이나 능력, 스킬이 있으면, 기업은 신규 졸업자 채용이든 중도 채용이든 고령자 채용이든, 고액의 급여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의 능력에 자신이 있는 젊은이들 중에는 중장년층이 의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연공서열형 급여에 부정적이며, 고액의 초임을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인재가 늘고 있습니다.

대기업 쪽에서도 우수한 젊은 인재에게 높은 급여로 보답하기 위해 나이나 근속연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급여가 올라가는 연공서열형을 고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층의 초임을 대폭 인상하는 대신 거품기 입사 50 대와 단카이 주니어의 40 대의 정기 승급을 소폭 줄이는 등 급여계산을 맞추는 움직임이 확산되어 갈 예정입니다.

저출산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기업이 원하는 인재의 획득 경쟁은 격렬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젊은이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등 기업과의 치열한 쟁탈전이 되고 있습니다.

우수한 젊은이에게 실력에 맞는 급여로 응답하려면, 기업이 성장하여 수익을 계속 늘리지 않는 한 중장년 급여에 주름살이 가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1980 년대 후반의 거품기로 채용된 세대는 특히 인원이 많아 기존의 정기 승급을 계속해서는 50 대의 총 급여가 팽창하면서 많은 기업이 경영상의 부담이 된다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중장년 급여 삭감은 미디어에서 크게 거론되는 모습은 없지만, 그 징후는 이미 경제통계의 데이터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후생 노동성의 임금 구조 기본 통계 조사에 따르면 2008 년과 2018 년 남성의 평균 임금을 비교하면 20~24 세, 25~29 세, 30~34 세는 늘어나는 반면 35~39 세, 40~44 세, 45~49 세는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위 그림 참조).

과거에는 연령이나 근속연수와 비례하여 급여는 높아져 갔습니다만, 외자계 기업과의 인재쟁탈전으로 젊은이의 급여가 인상되어 그 영향을 받는 중장년층에게는 어려운 시대가 도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간단히 퇴직으로 내몰리는 시대로...

그 구체적 사례로, 의약품 업체의 에이자이는 2019 년 봄에 실시한 베이스 업에서 20~30 대의 젊은 사람을 40 대 이상보다 극진히 했습니다.

그래도 45 세 이상 300 명 정도가 조기 퇴직에 응했기 때문에 총 인건비는 늘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장년층의 조기 명예 퇴직을 늘리는 대신 신규 졸업자 채용을 예년의 2 배 이상으로 늘리고 조직의 세대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쿄 상공 리서치에 따르면 2019 년 상반기는 상장 기업의 조기 퇴직이 2018 년 2 배의 속도로 늘어난다고 해서 연공 서열과 종신 고용 제도는 이미 마지막이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일본의 기업은 여전히 연공서열이 뿌리 깊어, 유능한 젊은이들은 실력주의 외자계 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매력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뒤집기 위해서도 일본의 기업은 연중 채용을 통해서, 종신고용이나 연공서열에 서서히 바람 구멍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10 년 이내에는 회사원 개개인이 스킬을 닦아 나가지 않으면 호경기와 불경기에 관계 없이, 기업에서 쉽게 퇴직당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키린에서 시작된 외부인재의 활용

어쨌든 향후, 젊은층으로부터 중장년에 걸쳐 중도 채용의 비율이 상승의 일로를 걸어, 장래적으로는 신규 졸업자 일괄 채용과 동등하게 일반적인 채용이 되어 가는 흐름은 불가피합니다.

중도의 채용 시장이 양뿐만이 아니라 질을 함께 해 갈지 어떨지는, 일의 모티베이션이 높은 사람이나, 자발적으로 캐리어의 형성을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늘어 갈지에 달려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그 일이 얼마 전의 일본 경제의 성패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 사람들은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물리적인 거리나 언어적인 차이가 쉽게 극복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비시장이 글로벌화 되어 상품·서비스의 요구가 다양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의 채용이 기업의 성장에 불가결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쟁력을 어떻게든 강화하고 싶은 일본의 기업은, 외부로부터 다양한 인재를 도입해, 경직된 인사제도나 기업 풍토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로 맥주 업체인 기린 홀딩스의 이소자키 요시노리 사장은 2019 년 4 월 입사식에서 '앞으로는 외부에서 중도 채용한 인력이 5 할이 되어도 상관 없다'고 신입 사원에 말을 걸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에서 중도 채용 인력은 1 할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외부 인재 채용을 계속해, 보수적이고 관료적 기업 풍토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진 4) 출처: 겐다이비즈니스

일본형 고용은 드디어 종언으로 향한다

기린홀딩스는 다른 많은 재벌계 기업과 마찬가지로 보수적이고 관료적인 기업 풍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고 유연한 발상이 부족하여 히트 상품이 생기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2015 년, 이소자키 사장은 스스로가 사장에 뽑힌 이유에 대해서, '과거의 속박을 끊을 수 있다고 기대되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사장 취임 이후 외부 인력을 채용하고는 요직에 앉혔습니다. 오랜만에 히트상품이 된 '본기린'을 시도한 공로자는 바로 외부에서 헤드헌팅한 인재였습니다. '본기린'의 성공은 히트상품을 낳는 원동력은 다양한 인재가 자유로운 발상으로 의견을 교환해 태어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당연한 사고방식이 일본 기업의 표준이 되어, 중도 채용의 확대가 일본 기업의 기폭제로서 기대되는 바입니다.

첫머리에서도 말했지만 도요타가 중장기적으로 중도 채용을 5할로 하는 방침은 일본 기업 전체가 바뀌는 지각 변동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암반으로 여겨져 일본식 고용의 '큰 산'이 움직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멀지 않은 장래, 일본의 신규 졸업 일괄 채용의 중요성은 점점 흐릿해지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중도 채용의 비율이 5 할을 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세가 되겠지요. 젊은이를 키우는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도, 즉각전력 인재를 중도에서 채용하려는 사고방식이 많은 기업에서 주류가 될 것입니다.

KIC 중국 NEWS

1. KIC 중국 이상운 센터장, '창예방 100 미래산업 정상회의' 참석 (2019.12.18)

[KIC 중국. 황대연 연구원] 2019 년 12 월 18 일, KIC 중국 (한국혁신센터) 이상운 센터장은 중국 유명 인큐베이션 센터, 창예방에서 주최하는 '창예방 100 미래산업 정상회의'를 한국을 대표하여 참석하였다.



사진 1) 출처: KIC. (왼쪽부터) 창예방 세귀친(解国琴) 창립 파트너, KIC 중국 이상운 센터장



사진 2) 출처: KIC. 현장사진.

본 회의는 중국을 대표하는 창업가 및 벤처 투자자 300 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이상운 센터장은 귀빈으로 초청받아 참가하였다.

‘창업방 100 미래산업 정상회의’는 AI, 빅 데이터, 5G 등 혁신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오늘, 전통 산업과 혁신산업의 조화, 선두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스타트업의 발전 방향 등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본 회의는 이미 10 년 이상 진행된 중국 창업투자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행사 중 하나로, 텐센트, 레노버, 베이징자동차그룹 등 중국 대표 기업 역시 본 회의에 참석하였다.

본 정상회의는 17 일 부터 19 일까지 진행되며, 이상운 센터장이 참가한 오늘(18 일)은 혁신산업포럼 및 자본운영에 대한 특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2.KIC 중국 이상운 센터장 <한 · 중 · 일 벤처투자 및 과학 기술 성과 혁신 포럼회> 참석 (2019.12.19)



사진 1) 출처: KIC. 단체 사진

[KIC 중국 황소정 연구원] 12 월 19 일, 중한일벤처투자 및 과학기술 변화포럼회가 중국 무한 광복카페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회에는 KIC 중국 이상운 센터장을 비롯해 허베이성 과학기술협회 부주석 위진, 후베이성 과학기술협회 혁신방안대회 조직위 주임 천메이니, 무한과학기술국금융처처장 진카이홍, 후베이성 과학기술청 하이테크 센터 주임 난엔천, 무한시과학기술성과변화국 부국장 리엔린, 후베이성 과학기술협회 혁신방안대회 조직위 과장 덩팅 등 주요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사진 2) 출처: KIC. 일본아시아 투자 컨설팅(중국) 유한회사 모토마사호 부회장

이번 회의는 일본아시아 투자 컨설팅(중국)유한공사, KIC 중국(한국혁신센터), 국내 벤처투자기관 화창성대, 창세자본 등이 각각 중한일 투자환경, 과학기술 성과변화 등을 주제로 나눠 가졌다. 재한 창업자들에게 한·중·일 벤처투자가 각국의 정책·발전 등 분야에서 다른 점과 상호 간의 융합과 추진력을 보여줬다.



사진 3) 출처: KIC. KIC 중국 이상운 센터장

일본아시아 투자 컨설팅(중국) 유한회사의 모토마사호 부회장은 '중미일의 혁신적인 투자환경 비교'라는 제목의 강연을 했다. 모토마사호 부회장은 창업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주로 팀을 보고, 팀이 하는 프로젝트를 업계에 비교함으로써 좋은 투자 프로젝트를 발견할 수 있으며, 기존에는 투자시장이 과열되었고, 지금은 시장이 침전되어 투자자들이 더 이성적으로 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투자기회와 투자역량은 일본보다 상대적 강세다.

KIC 중국(한국혁신센터) 이상운 센터장은 우한정부와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한국과학기술부와 샤오미 인공지능과의 협력 외에, 2020 년 우한정부와 과학기술성과 매칭, KIC 중국과 중국기업의 과학혁신, 산업협력 등 분야에 상호적으로 교류를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중한엔젤투자단 건설 및 엔젤투자 정보교류 협력 플랫폼을 만들어 창업기업에게 융자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 강당을 개최하여, 우한-서울 간의 혁신창업교류 연동 모델을 수립할 것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국제환경의 끊임없는 발전에 따라, 새로운 시대의 기회는 언제나 끊임없이 생겨나는데, 현재의 경제 환경에서 어떻게 과학기술 성과를 더욱 유력한 변화로 실현시킬 수 있을까? 포럼 현장에서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원탁 회의를 진행하였다. 우한과학기술원 부처장 조우론펬이, 우한광정 정보기술주식회사 부사장 주둔위, 광곡카페사장 리루시웅 등 귀빈들은 "벤처투자 어떻게 과학기술성과변화에 도움을 줄 것인가"라는 주제로 원탁 회의를 진행하였다.



사진 4) 출처: KIC. 원탁 회의 현장

이외에도, 이번 포럼회에서는 KIC 중국(한국혁신센터)와 광곡카페의 협약식이 진행되었고, 광곡카페 사장 리루시웅은 이번 협약식에 대하여 양 측은 미래 인재유치와 과학기술변화등의 방면에서 협력을 전개할 것이며, 우수한 창업혁신과 투자매칭환경을 함께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광곡창업커피가 주최하고 장강천사회(天使长江)가 지원을 하여 중한일 창업투자 기관과 관련 서비스기관 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3 자 모두 과학기술프로젝트 매칭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회의와 상호 파견, 플랫폼 서비스 등의 방식으로 정보 공유, 각 성과의 국제 교류 유동과 전환을 추진한다.

3.KIC 중국 이상운 센터장 <2019 중국 광곡 3551 국제 창업대회 결승전> 심사위원으로 참석 (2019.12.19)



사진 1) 출처: KIC. 2019 중국 광곡 3551 국제 창업대회 결승전 단체 사진

[KIC 중국 황소정 연구원] 12 월 19 일, 2019 중국광곡 3551 국제창업대회가 우한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미국 실리콘 벨리, 영국 런던을 포함한 전세계 10 대 경기 구역에서 동시에 실시되었으며 “글로벌 인재를 모아, 세계적인 옵티컬 벨리(Optical Valley)를 건설하자”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본 대회는 우한시급위원회 조직부, 우한동호신기술개발구관리위원회가 주최했고, 우한동호신기술개발구 유치국, 우한동호신기술개발구단공업위가 주관했다.

이번 대회는 국제 영향력이 있는 혁신브랜드, 동호고신구의 특별한 혁신환경과 창업 문화를 알리고, 세계 일류 혁신 성과가 옵티컬 벨리 창업공간에 정착하도록 추진하고, 동호고신구가 전세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창업혁신센터로 조성되기 위한 공동 주력을 목적으로 한다.

2016 년에 시작된 이래, 전세계 2100 여개의 양질의 창업 프로젝트를 유치하였으며, 하버드, 스탠퍼드,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등 세계 최고 명문 대학들의 창업팀도 적지 않게 보유하고 있다. 2017 년 대회를 우승한 왕성택 스탠포드 박사팀은 각 시스템의 연구개발과 상업화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미 누적된 용자액은 1 억 인민폐 이상이며, 당시 평가 추정지는 약 10 억 인민폐에 달한다.

또한 지난 대회 우승자인 화중과 대본과, 싱가포르 난양공대 쑤레이먼 석박사, 창시한 화인심은 프리미엄 LED 칩을 자체 개발해 유명 자동차 브랜드의 공급망에 진입했다.



사진 2) 출처: KIC. 2019 중국 광국 3551 국제 창업대회결승전 현장 사진

이번 대회는 3000 개의 양질의 창업 프로젝트와 고급인력진을 모았으며, 결승전에는 최종적으로 8 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300 만 인민폐의 상금을 놓고 경쟁을 진행했다.

우한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우수한 팀에게 고신구에서 발전할 기회 제공하고, "3551 옵티컬 밸리 인재 계획", "황허 인재 계획"에 가입시켜 최대 2300 만위안의 투자금액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